

890-8
49172
2001

9083388

碩士學位論文

家宅信仰을 통한
韓國傳統住居空間의 意味 考察

全南大學校 大學院

建築工學科

羅 荷 暎

指導教授 千 得 琰




2001年 8月

家宅信仰을 통한 韓國傳統住居空間의 意味 考察

全南大學校 大學院
建築工學科

羅 荷 曠

上記者의 工學碩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所 屬	職 位	學 位	姓 名
審查委員長	全南大學校	教授	工學博士	申南秀 
審 查 委 員	全南大學校	教授	工學博士	朱石中 
審 查 委 員	全南大學校	教授	工學博士	千得琰 

2001年 8月

목 차

1. 서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2. 韓國傳統住居에 影響을 미친 要因	5
2-1. 자연적 요인	5
2-2. 인문적 요인	6
3. 民間信仰의 概念 및 形態	9
3-1. 민간신앙의 개념	9
3-2. 민간신앙의 연원	10
3-3. 민간신앙의 형태	11
4. 家宅信仰의 概念 및 形態	16
4-1. 가택신앙의 개념	16
4-2. 가택신앙의 역사	16
4-3. 가택신앙의 형태	19
5. 家神을 통해 본 韓國傳統住居空間의 意味	24
5-1. 上位神 - 天神의 공간	26
1) 대청마루 - 城主神	26
5-2. 中位神 - 人神의 공간	31
1) 안방 - 三神 - 안주인	31
2) 부엌 - 竈王神 - 안주인	35
3) 사당 - 祖上神 - 祖上	38
4) 측간 - 측간신 - 첩	39

5-3. 下位神 - 雜神의 공간	42
1) 축사 - 牛馬神	42
2) 곳간 - 도장지신	43
3) 방앗간 - 방아지신	44
4) 대문 - 수문신	45
5) 장독대 - 철룽신	47
6) 우물 - 용왕신	48
6. 家神을 통해 본 韓國傳統住居空間의 構成	50
6-1. 공간의 위계구성	50
6-2. 공간의 조직구성	53
6-3. 사례분석	60
7. 결론	63
참 고 문 헌	66

표 차 례

표 1. 연구의 진행과정	4
표 2. 민간신앙과 외래종교와의 비교	10
표 3. 민간신앙의 역사적 연원	11
표 4. 기타 가신의 종류 및 위치	21
표 5. 家神의 위계와 좌정공간	25
표 6. 城主巫歌에서 나타난 성주신의 탄생 = 집의 완성	28

표 7. 대청마루의 공간적 특징	30
표 8. 제주도 무속의 췌트리	51
표 9. 『문전본풀이』에서 나타나는 가신들의 공간적 위치	55
표 10. 평면형태와 공간구성	59
표 11. 空間分析圖	61
표 12. 한국전통주거의 공간구성	62

그림 차례

그림 1. 구석기 시대의 집터(공주 석장리)	17
그림 2. 가신 비율(%)	24
그림 3. 城主神의 神體	26
그림 4. 북통구스족의 malu	29
그림 5. Oronchun족의 maro	29
그림 6. 三神의 神體	31
그림 7. 男左女右의 주거공간(장흥 위성렬 家)	33
그림 8. 竈王神의 神體	35
그림 9. 祖上神의 神體 - 감실	38
그림 10. 양통집의 축사배치	42
그림 11. Masai족의 축사 배치	43
그림 12. 守門神의 神體	46
그림 13. 신의 위계와 주거공간과의 관계	52
그림 14. 일문전의 위치	53
그림 15. 가신들의 위치와 주거공간 조직구성과의 연관성	56
그림 16. 제주도 성읍마을 이영숙가옥	57

가택신앙을 통한 한국전통주거공간의 의미 고찰

나 하 영

전남대학교대학원 건축공학과

(지도교수 : 천득염)

(국문초록)

주거는 사회적 환경의 산물로서 거주자의 인문사회에 대한 관점이 반영된 실체이다. 그러므로 주거공간을 이해함에 있어 주거공간에 부여된 문화적, 상징적 동기와 가치관을 소홀히 한 채 현상학적 특성만을 찾는 것은 주거의 본질을 왜곡시킬 여지가 다분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주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나타난 건축적 공간과 더불어 그 공간을 형성하게 되는 거주자의 사회적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전통주거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대신앙의 근간이 되어왔던 민간신앙의 여러 유형 중 주거를 배경으로 형성된 가택신앙을 고찰하였으며, 가택신앙에는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생활관이 스며들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과 그러한 인간에 대한 생각들이 주거공간 조직을 만들어 내는 여러 요인중의 하나를 반영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전제되어져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고찰을 통해, 본 연구는 가택신앙에서 등장하는 가신의 성격과 기능을 통해 공간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주거공간과 인간 그리고 인격화된 가신의 상징적 연관성을 통해 한국전통주거의 공간구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존의 민속학분야에서의 조사를 바탕으로 여러 분야의 연구결과들을 원용하는 종합적 접근방법을 취했으며, 이를 통해 진행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전통주거의 거의 모든 공간에는 각각의 기능을 지닌 가신이 좌정되어 있다. 이는 한국전통주거공간이 세속된 인간세계에 건설된 성스러운 공간으로써 주거외부의 俗됨으로부터 주거내부공간의 聖스러움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한국전통주거를 가택신앙의 신앙적 체계로 살펴보면, 건물로서의 주거 건축이 가신들이라는 인격체로 의인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건물로서의 주거'와 '가신의 거처'가 동일시되는 동시에, 주거는 가신이라는 신격체들로 신성시되어 왔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국전통주거는 기능적 요구에 의한 물리적 공간일 뿐 아니라 신의 개념과 함께 신성공간을 형성하였으며, 이러한 종교적인 상징과 의미를 통하여 재앙을 방지하고 풍요로운 삶을 유지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2) 신·인간·공간의 상징적 관련성 속에서 한국전통주거공간의 구성원리를 이해하기 위하여 가신과 주거공간과의 관계를 고찰해 본 결과 신들의 관계는 신앙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생활상을 반영하며, 신의 공간적 위치는 실제의 공간적 구성원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2-1) 주거내에 존재하는 가신의 위계는 주거공간의 중요성과 위계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신들의 존재는 그곳에 거주하는 거주자와 그들의 생활을 반영하며 가신들간의 위계질서는 곧 주거공간의 위계적 구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2-2) 제주도의 문전본풀이와 경기도 화성의 성주굿 무가를 분석해본 결과 제주도민가의 공간구성 원리에는 부엌과 변소의 위치를 반대편에 놓으려고 하였던 점과 마당과 대문의 위치를 직접 맞게 하지 않고 긴 울래를 통하여 연결하려 했던 생각들이 신화에 반영되어 있었으며, 경기도 화성지역의 성주굿 무가에서는 조왕신과 성주신의 대립관계를 통한 대청마루와 부엌의 공간관계가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볼 때 무속신화에서 나타나는 신들의 관계는 신화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생활상을 반영하는 것이며, 또한 '주거공간에서의 공간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오랜 기간동안 거주자의 생활과 주거공간 속에서 함께 한 가택신앙의 내용에

는 거주자의 생활관이 배어 있으며 따라서 가택신앙의 분석을 통한 한국전통주거의 의미 및 구성에 관한 이해는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온 공간구성원리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인문사회에 대한 생각을 바탕으로 한 해석은 다양하게 접근되어야 할 한국전통주거의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건축은 사회 환경과 전통의 소산으로 한 사회의 이상과 신앙, 세계관, 우주론에 대한 구체적인 은유와 실제적인 의미를 만드는 것이고,¹⁾ 전체 인간환경을 구성하는 문화, 공간관계 및 성격을 표현하는 하나의 상징체계이다.

그 중에서도 주거공간은 사람이 거주하기 위한 물적 대상인 동시에 오랜 역사를 거친 복합적인 문화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거공간을 인간의 문화가 반영된 구체적인 표현물이라고 볼 때, 주거공간에 부여된 문화적, 상징적 동기와 가치관을 소홀히 하고 현상학적 특성만을 찾는 것은 주거의 본질을 왜곡시킬 여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주거공간의 기능적이고 형태적인 측면뿐만이 아닌 그 사회가 갖는 역사·문화적 배경과 특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개념을 건축에 반영하고 표현하는 것이 어떤 측면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전통건축의 연구에 있어서 주거건축은 근대화 작업에 병행하여 역사적 전통유산에 대한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1970년대 이후 매우 다양하고 급속히 발전되어 왔다. 하지만 대부분 주거의 평면이나 동의 배치형식, 지붕이나 벽과 같은 외형과 바닥 등의 내부 구조 및 건축 기술에 대한 고찰로서, 주거를 단순히 건축 구조물로서 파악하는 데 그치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다.

이에 민속학자인 김광언은 민속학적인 측면으로 한국전통주거의 연구에 접근하고 있다. 그는 주거란 다양한 문화요소의 복합체이므로 한 두 분야의 관점만으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건축학분야에서의 주거건축연구의 한계는 물적 대상인 건축공간을 우선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생활의 이해를 통한 주거건축의 연구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²⁾고 지적한다. 주거란 본디 인간의 삶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활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1) Amos Rapoport, 건축문화의 기원, 윤일주 역, 건축학 개론, 기문당, p.31

2) 김광언, 韓國의 住居民俗誌, 민음사, 1988, p.3

그렇지만 건축학 연구는 민속학 연구와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으로 건축적인 문제 즉, '어떻게 계획되었는가'하는 구체적인 결과에 대한 물음에 대답하여야 하며, 따라서 건축학 연구는 민속학 연구를 건축적인 원리로 재해석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물론 민간신앙의 연구는 민속학에서 풍부하게 되어 왔다. 그러나 민속학에서의 연구는 그 의미가 어떻게 인류학적인 가치를 갖는지가 관심이기 때문에 건축학적인 관점에서의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축해석의 측면에서 고대신앙의 근간이 되어왔던 민간신앙의 여러 유형 중 주거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택신앙을 고찰하고 주거와 관련된 신앙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표상되었으며 어떠한 상징적 동기들과 가치관을 부여하였는지를 파악하여 한국전통주거의 의미 및 공간구성을 규명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한국전통주거에서 관찰되는 현상은 단순한 물리적 현상뿐만 아니라 인간의 의도, 사고 그리고 신앙과 깊은 관계가 있는 사회·문화적 현상이 함께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 현상의 인간적 의미, 보이지 않는 의미를 이해하며 주거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의미론적 입장을 취한다. 즉, 건축환경인식의 복합적 성격을 감안하여 우리민족의 혈맥에 흐르는 전통적 사상 특히 종교사상을 대표하는 민간신앙적 사유를 고찰하여 이것이 형상화된 건축 유구를 통해 그것의 조형의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종교사상이 한민족의 성립과 동시에 형성되어지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소멸과 생성을 거듭하는 것이며 전시대의 현상이 새시대의 사상과 융합되어 맥을 이어오는 동안 건축을 포함한 문화현상 전반에 걸쳐 강한 영향을 끼치게 되리라는 논리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 연구는 한국전통주거에서 나타나는 사회·문화적 현상 중 가택신앙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가택신앙을 통한 주거공간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

를 근간으로 물리적 현상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분석적, 실증적인 접근방법보다는 건축학, 지리학, 문화인류학, 민속학, 종교학 등 여러 분야의 연구결과들을 원용하는 종합적, 총체적인 접근방법을 취했으며, 과학적 조사분석보다는 주제의 성격에 맞도록 서술적 기술로써 진행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른 연구의 내용 개요 및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주거에 대한 연구는 주로 물리적 형태와 기능성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며 시대와 문화가 고려되어진 의미에 관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전통주거형성에 영향을 미친 여러 가지 요인 중 인문적 요인에 대해 고찰한다.

2) 앞서 살펴본 인문적 요인 중 유교사상, 풍수설 등 다른 어떠한 요인보다도 오랜 역사와 강한 전승력을 가지고서 지속적으로 전통주거형성에 영향을 미쳐온 민간신앙의 개념, 역사 그리고 형태 등에 대해 살펴본다.

3) 민간신앙의 여러 유형 중 가택신앙은 주거를 배경으로 하여 생겨난 신앙형태로 전통주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민간신앙이 아닌 좀더 좁지만 주거와는 보다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가택신앙에 대한 개념 정립 및 여러 가지 종류와 형태 등에 대해 고찰한다.

4) 가택신앙은 주거공간내에 위치하는 신적 존재에 대한 신앙이다. 따라서 가택신앙에서 등장하는 가신의 기능 및 성격을 통해 그들이 좌정하는 공간에 대한 의미를 이해한다.

5) 인격화된 가신이 인간을 상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신들의 관계는 거주자의 사회적인 상황을 은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며, 그러한 신들의 관계가 한국전통주거공간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 까지 확대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택신앙에서 나타나는 가신과 한

국전통주거공간과의 상징적 연관성 속에서 한국전통주거의 평면을 크게 위계와 조직구성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한국전통주거공간이 갖는 의미와 조직구성에 대한 결론으로 이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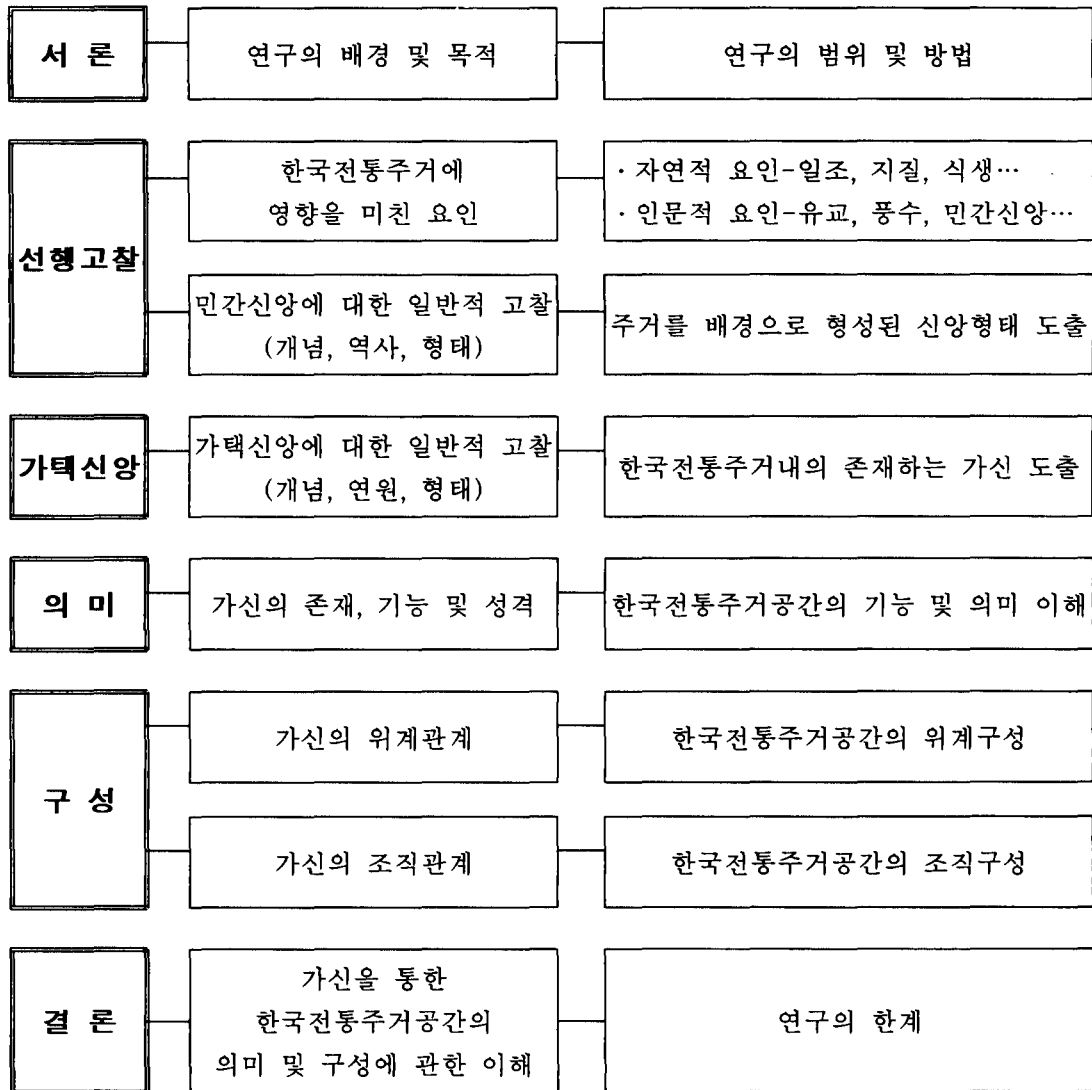


표 1. 연구의 진행과정

2. 韓國傳統住居에 影響을 미친 要因

徐有渠의 『林園經濟志』 相宅志卷第一에는 「살만한 곳을 택할 때에는 처음에는 地理가 좋아야 하고, 다음에는 生利가 좋아야 하며, 또 人心이 좋아야 하고, 그 다음이 산과 물이 있어야 한다. 이 네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살기 좋은 땅이라 할 수 없다.」³⁾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주거의 위치 선정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한국전통주거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선행연구와 문헌을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 요인은 크게 자연적 요인과 인문사회적 요인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1. 자연적 요인

특정지역의 기후와 풍토는 인간의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기후나 풍토에 따라서 문화적 특성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북위 33~43도에 위치하나 똑같은 위도상에 있는 타지역보다 기온이 낮은 편이며, 연평균 기온으로 보아 12℃이상인 이남과 그 이하인 이북 즉 난온대와 온대로 구분된다. 이와 같은 기온 외에도 계절풍, 강수량, 강설량 등이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나, 이는 곧 그 지역 주거공간 구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하지만 주택의 방향이 남쪽이나 동쪽을 향해야 좋다는 생각은 공통되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살림집은 남향함을 으뜸으로 하고, 동향하는 것을 버금으로 친다. 북향을 한 다거나 서북향을 하는 것은 불가하고, 서쪽에 문을 내는 것도 불리함이 많다.」⁴⁾

「사는 집의 향은 반드시 남향하여 양기를 받아야 한다. 집이 북향하거나 서향

3) 徐有渠, 林園經濟志, 相宅志 卷第一, 보경문화사, 1983, p.451

4) 徐有渠, 앞의 책, p.463

하거나 동향하거나를 막론하고, 사람 사는 방의 창은 모두 남쪽으로 내야 한다.」⁵⁾

고 하며, 일반적으로 자연적 채광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향을 택하여 건물을 배치하였던 것이다.

한편 지질 조건과 식생 역시 한국전통주거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지적되는데 식생은 시각적인 쾌적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온돌난방의 에너지원으로 서 또한 건축재료로서 매우 중요한 공급원이었다.

또한 추운 겨울을 지내기 위한 온돌구조가 일찍부터 발달되었고 긴 여름철을 보내기 위한 마루구조가 발달하였다.

이처럼 자연환경은 한국전통주거 형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일조조건, 지질, 식생, 사계절의 변화 등이 그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2-2. 인문적 요인

1) 儒敎思想

유교가 유사이래 종교적 요인이 건축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유교가 조선시대의 최고원리로 숭봉된 결과 국민정신의 이상이 되고 조상숭배가 민간신앙의 핵심이 되었다. 따라서 조선시대 사회의 기본 단위는 개인이 아닌 가족으로, 가부장적인 대가족제도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가족제도는 가장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 세대가 한 울타리 안에서 생활하는 형태로서, 이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는 승유사상이 미친 영향은 주거건축에 나타난 가묘제인데, 이로써 조선시대의 주거건축에는 사당이라는 제사 공간이 생기게 되어 공간 구성에 특색을 더하게 되었으며, 유교사회에 있어 남녀의 엄격한 구별은 조선시대 주거건축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유교사상을 받아서 형성된 男女有別이란 조선시대 사회통념으

5) 徐有集, 앞의 책, p.463

로 內·外의 생활공간을 분할시켰는데, 크게는 안채와 사랑채를 별도로 두어 남녀를 의식적으로 분리시켰고, 작게는 안방과 사랑방, 내측과 외측을 두게 되었던 것이다.

2) 風水說과 陰陽五行思想

풍수설이라는 말이 사용되어지게 된 것은 오래 전부터였다. 역사상으로 보면 언제 한반도에 전래되었는지 명백하지는 않으나 고려 正祖때에 이미 풍수지리가 過擧 시험과목 중 하나로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 이전부터 즉 신라 혹은 그보다도 훨씬 이전부터 원시적 신앙의 형태로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풍수설은 토지에는 만물을 생육하는 생명력이 있다고 하는 관념에서 유래된 음택과 양택을 선정하는 사상이다. 즉, 만물을 화생하는 생명력이 있는 땅의 활력에 의하여 인생의 길흉화복이 부여되는 것이며, 또한 地中에는 생기가 行하고 있는데 이 생기가 바로 인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丁若鏞은 「茶山論叢」에서 풍수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소위 길한 땅이란 것은 위로는 부모의 體魄을 편하게 하고 아래로는 그 자손에게 福祿을 주는 것이다. 자손이 번창하고 재물이 풍족하여 혹은 10대가 지나도 그 餘蔭이 다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인바, 이것은 天下의 큰 보배이니 千珠萬金으로도 바꿀 수 없다.」⁶⁾

라고 하여 이와 같은 사상에 입각한 택지선정은 家道를 수호하고, 번영을 이루는데 기초가 되는 것으로 매우 소중히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음양오행사상은 풍수이론의 뒷받침이 되어 택지선정에 있어 기본법칙의 원리로 쓰여왔다. 음양이란 음과 양의 상반된 성질이 상호의존의 관계로 전개되어 나간다는 것으로, 천지간에 있는 사물을 각각 음과 양으로 구분하고 이들 음과 양의 상호작용에 의해 모든 우주 만물의 성장활동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성장활동은 五行(木, 火, 土, 金, 水)과 더불어 우주의 운동진행 체계를 파악하는 사상으로

6) 丁若鏞, 茶山論叢, 李翼成 譯, 乙酉文化史, 1990, p.104

통칭 음양오행설이라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주거를 건축함에 있어서는 향을 중시하게 되어坐와 向을 보게 된 것이다.

3) 民間信仰

한국의 민간신앙은 자연에 대한 경외심으로부터 출발하여 자연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귀결되며, 이는 곧 자연에 대한 절대적 순응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민간신앙에 의한 자연숭배와 영혼불멸사상은 불교, 도교, 유교, 음양오행설, 풍수도참사상 등의 사상으로 이어지게 되어 전통주거공간 형성과 관련된 민간신앙의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전통주거의 형성과 관련된 민간신앙의 예는 가택신앙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가택신앙은 가택의 요소마다 신이 존재하면서 집안을 보살펴준다고 믿고 그 신에게 정기적, 또는 필요에 따라 의례를 행하며 신앙하는 것이다. 가신으로는 성주, 조상, 조왕, 삼신, 터주, 업, 철룡, 우물신, 우마신 등이 있다.

이처럼 한국전통주거는 자연적 환경과 더불어 유교사상, 풍수·음양오행사상, 그리고 민간신앙을 비롯한 인문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3. 民間信仰의 概念 및 形態

3-1. 民間信仰의 概念

民間信仰에서의 民間은 미개문화에 있는 종족과 문화사회속에서 하위문화(Subculture)에 머물고 있는 도시나 시골의 민중(mass group)을 말하며 信仰이란 구전된 자연신앙을 일컫는다. 즉 민속의 관습과 더불어 있는 신앙이다. 그래서 민속신앙(Ethnic Belief)이라고 호칭되기도 한다.

이러한 민간신앙의 성립은 인간이 나약한 존재라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天地間에 방치된 인간은 혹독한 자연의 악조건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었고 자연현상은 점차 인간에게 경외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민간신앙은 인지의 발달과 더불어 급기야는 생물, 무생물을 막론하고 모든 존재물에는 精靈 또는 神靈이 내재되어 있다는 Animism과, 지역적·혈연적 집단과 그 집단의 특정한 동·식물 사이에 주술 또는 종교적인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는 Totemism, 인간과 신과의 매개자로서 Shaman을 인정하는 Shamanism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천지간에 生氣가 있어 氣의 이용여하에 따라서 吉凶禍福이 좌우된다는 풍수신앙 등을 낳게 하였다.

다시 말해 민간신앙은 불교, 유교가 우리나라에 수입되기 전부터 민중속에서 발생하여 전해 내려오는 것이며, 그것은 특정한 이론이나 교리가 없이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됐지만, 그것들의 형태는 복을 기원하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앙이나, 잡귀의 저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통일된 의미형식으로 나타난다.

즉, 민간신앙은 한민족의 생활속에서 自生, 自傳하는 자연적 종교현상⁷⁾으로서 한민족의 삶의 모습과 맥박을 간직하고 있으며 한민족 고유의 神觀, 世界觀 등이 포함된 민족의 보편적인 기층적 종교라 할 수 있다. 반면 외래종교인 불교, 유교⁸⁾ 등은 한국에 들어와 주로 지식층 사이에서 오랜 세월을 두고 활동을 해왔지

7) 고대민족문화연구소, 민간신앙·종교, 한국민속대관 제3권, 고대민족문화연구소 출판부, 1982, p.21

8) · 불교는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전래되었다. 이후 백제 신라에 전래되면서 토착화되었다.

· 유교는 원래 종교보다는 학문인 유학으로서 전래되었다. 고구려에 처음 전래되었으나 고려말

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불교, 유교는 주로 지식층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래서 불교, 유교 등의 외래종교는 표층적 종교인 것이다. 민간신앙과 외래종교와의 차이점은 우선 자연발생적이라는 점에서 주어진다. 이들의 차이점⁹⁾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자연적 종교 - 민간신앙	외래종교 - 제도종교
교주	無	有
교리	비체계적	체계적
경전	비문서화	문서화
교단	조직성 없음	교주에 의해 조직이 정비됨
사제	전문성이 약하고 신도와의 구별이 없음	전문적이며 신도와의 구별이 이루어짐
사원	원시적 형태이며 생활공간내에 중첩되어 나타남	완전한 형태로서 생활공간과 격리되어 나타남
신관	自然的多神觀, 비형식적	唯一神觀, 형식적
의례	일상생활속에서 나타나며 생활의 한부분을 이룸	일상생활과는 구별되어 완전한 종교생활을 형성함

표 2. 민간신앙과 외래종교와의 비교

3-2. 민간신앙의 연원

민간신앙의 역사적 연원을 여러 가지 자료에 나타난 내용을 바탕으로 추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후 조선조에 걸쳐 토착화되었다.

9) 朴在夏, 韓國 民間信仰 象徵體系의 場所化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88, p.19

내 용	자 료	시 기
三韓의 祭天과 蘇塗	『三國志』, 『後漢書』의 東夷傳	BC 2세기경
巫俗	『三國史記』, 『三國遺事』	A.D 1세기(南解王條)
占卜, 巫俗, 洞神祭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朝鮮王朝實錄』	삼한·삼국·고려·조선 으로 이어짐

표 3. 민간신앙의 역사적 연원

이와 같이 민간신앙은 AD 4세기 후반에 들어온 불교보다도 더 오랜 역사적 연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민간신앙의 기반 위에 불교, 도교, 유교, 기독교 등의 외래종교가 들어와 종교·문화의 적층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민간신앙은 단순히 과거의 잔존물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전통문화를 보존시켜주고, 민족의 정서를 후대에 계승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시대에 맞게 그 형태를 달리하며 인간의 불안정한 현실의 삶을 지탱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3-3. 민간신앙의 형태

민간신앙의 형태는 계절제를 비롯하여 가택신앙, 동신신앙, 무속신앙, 점복신앙, 예조, 풍수신앙, 득경신앙, 영웅신앙, 자연물신앙, 사귀신앙, 금기, 주부, 주술, 민간의료 등 다양하며¹⁰⁾ 이들 민간신앙의 목적과 형태는 그 용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1) 계절제

계절제는 春·夏·秋·冬의 계절에 따라 풍요와 건강을 기원하는 祭儀的 행사이다. 이와 같은 계절제의 형태를 살펴보면 봄에는 정초 신년제¹¹⁾에서 시작하여

10) 김태곤, 앞의 책

11) 신년제는 가정을 단위로 하는 의례로 설날 아침의 차례를 비롯한 안택고사, 달집태우기, 다리밟기, 부럼, 달맞이 등이 있고 부락을 단위로 하는 의례로는 지신밟기, 줄다리기, 쥐불놓기, 고싸움 등이 있다.

단오제까지의 기간에 포함되는 한식, 삼월삼짇 날 등이 있고, 여름에는 유두, 칠월칠석 등이 있으며, 가을에는 한가위, 시월상달 등이 있고, 겨울에는 동지에 따르는 제반 의례와 선달의 終年祭의 의미를 갖는 의례들이 있다.¹²⁾ 계절제는 대체로 계절에 관련된 농경제의 성격이 짙고, 이런 계절제는 가신, 동신신앙과도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계절제는 1년 4계를 통해서 계속되는 것이다.

2) 가택신앙(家宅信仰)

가택의 요소마다 신이 존재하면서 집안을 보살피 준다고 믿고 그 신에게 정기적, 또는 필요에 따라 의례를 행하며 신앙하는 것¹³⁾이다. 가신신앙이라고도 하며, 집신신앙·집안신앙·또는 가정신앙이라고도 한다.¹⁴⁾ 가신으로는 집안의 으뜸신으로 일컬어지는 성주신을 비롯하여 조상신·삼신·조왕신·철류신·측간신·수문신·우마신 등으로 대단히 다양하다. 이들 가신들은 기능이 뒤섞여 있는 면도 있지만 저마다의 직능이 있어서 가족들을 위해 각각의 직능을 수행한다.

3) 동신신앙(洞神信仰)

동신신앙은 마을신앙이라고도 하며, 마을의 공동 수호신을 神堂에 모셔놓고 제액초복과 풍년을 기원하는 것으로 동민들이 합동으로 제의¹⁵⁾를 올리는 마을의 공동신앙이다.

동신신앙의 대상신은 명칭상으로는 43종이나 되나 계통상으로 분류하면 天神, 日神, 山神, 星神, 樹神, 地神, 水神, 人神, 邪鬼 등 9개 계통이 된다. 이 신들간에는 위계가 있어 그에 따라 신당의 위치가 달라지는데 앞의 4神은 가장 높은 위계에 해당하고 그 신당의 위치는 산의 정상이 된다. 그 다음은 人神, 樹神, 地神, 水神인데 그 堂의 위치는 언덕이나 동네입구, 논경지 내 등이다. 사귀는 그 위계가 가장 낮아 마을에서 외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이런 동신신앙 중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山神, 서낭당, 장승, 솟대신앙으로 보인다. 마을은 산을 등지고 남향을 하여 자리잡고 있는데, 마을 뒷산 중턱

12) 김태근, 앞책, p.17-18

13) 김태근, 앞책, p.18

14) 김영자, 한국민속사입문, 지식산업사, 1996, p.271

15) 이를 洞祭라 하는데, 일제시대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서 部落祭라고 불려지기도 하였다.

에는 山神을 모신 산신당이 있으며 그 옆에 장승과 솟대가 있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이 때 서낭당과 장승, 솟대는 수문장의 역할을 하면서 외부로부터 위액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준다고 믿어진다. 장승은 주로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지는데 이를 위한 제의를 올리는 마을도 있다.¹⁶⁾ 요즈음은 장승이나 솟대가 거의 소멸되어 산신당과 서낭당만이 남아 있는 곳이 많다. 지역에 따라서는 마을의 뒷산 산정에 국수신을 모시는 국수당¹⁷⁾이 있는 마을도 있다. 따라서 洞神은 대체로 한 마을에 국수신, 산신, 서낭신, 성황신, 장승, 솟대가 모두 나타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4) 풍수신앙(風水信仰)

풍수신앙은 풍수지리설이 무속신앙의 영향을 받아 민간속에서 신앙화된 것이다. 풍수사상은 신라 말기에 불교 선종의 유행과 함께 전국적으로 파급되기 시작하여 최근에 이르기까지 死者와 生者の 입지를 선정하는데 있어¹⁸⁾ 우리민족에게 큰 영향을 주어왔다.

풍수신앙은 山水의 氣가 인간의 길흉화복을 조절한다고 믿어 길지를 찾아 묘자리와 집터를 잡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조상숭배와 결부되어 묘자리를 위한 명당을 찾는데 더 역점을 두었다.

풍수신앙은 음양오행설을 바탕으로 하여 장풍¹⁹⁾, 득수²⁰⁾, 방위²¹⁾를 중요시 여긴다. 그러나 자연적인 길지는 쉽게 찾기가 어려우므로 그런 경우에는 그 땅의 결핍된 氣를 보충하여 그 땅을 길지로 변하게 하고 地力을 회복하기 위하여 인공적인 형태의 공간을 형성하는데 이를 가리켜 補라고 한다. 이를 위한 물리적 형태는 造山, 造林, 사찰²²⁾, 탑 등인데, 이들은 풍수이론에 맞추어서 氣가 허한 곳에 조성한다.

비보가 풍수상의 결핍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면 염승은 현재의 길지가 그 氣

16) 장승제라고 하며 洞祭로 대신 치루어지기도 한다.

17) 국사당, 국시당, 국시봉 등으로도 불려지면 天神을 봉안하는 당으로 그 위계가 가장 높다.

18) 死者를 위한 묘자리를 찾는 것을 음택풍수, 生者를 위한 터를 잡는 것을 양택풍수라 한다.

19) 장풍은 산을 등져서 바람을 막아 산의 기가 흩어지지 않는 자리여야 한다는 뜻이다.

20) 득수는 주위로부터 물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21) 방위는 陰位와 陽位를 구분하여 터를 정한다는 뜻이다.

22) 이를 특히 비보사찰이라 하는데, 이러한 사찰은 주로 마을 가까이에 있는 강 주변에 위치한다.

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염승을 위한 방법은 비보와 마찬가지로이다.

풍수신앙은 다른 민간신앙과는 달리 민간층에서만 유행한 것이 아니라 유교적인 조상숭배와 연결되어 양반층에서도 크게 환영을 받았다.

5) 무속신앙(巫俗信仰)

무속은 무당을 주축으로 민간층에서 전승되고 있는 자연적 종교현상이다. 무속에서 신앙되는 신은 앞에서 본 가신들과 동신들, 그리고 천신·칠성신 등의 外界神들로 민간신앙에서 신앙되는 神들이 종합된다.

6) 점복신앙(占卜信仰)

인간 운명의 미래를 예견하는 것으로, 인간은 점복의 결과로 얻어진 미래사를 믿는다. 주로 전문 점복자에 의해 점복이 행해지지만, 점복의 범주를 확대시킬 경우 정초의 토정비결 보기, 정월 대보름날 달을 보고 운수를 점치는 月占, 입춘날 보리뿌리를 보고 점을 치는 農占등 일반인이 행하는 것도 포함되어질 수 있다.

7) 독경신앙(讀經信仰)

독경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신앙의 한 형태로서 경문을 읽어 악귀를 몰아내고 복을 기원한다. 경문은 불교·도교·무속의 사교가 복합된 것으로, 신장(神將)의 위력으로 액을 막고, 잡귀를 물리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8) 영웅신앙(英雄信仰)

영웅의 영혼을 신으로 신앙하는 것으로, 대개 마을신앙과 무속신앙으로 자리잡고 있다. 人神 가운데 조상신이 있지만 영웅신은 조상의 신과는 다르다. 영웅신에는 왕신·장군신·대감신 등이 있는데, 보통의 인간과 다른, 뛰어난 인간의 영혼들이다.

9) 자연물신앙(自然物信仰)

나무·암석·강·산·바다 등 자연무생물과 구렁이·호랑이·말 등 동물, 까

치·까마귀·뽕 등의 조류를 신성시하여 신앙하는 것이다.

10) 사귀신앙(邪鬼信仰)

인간을 방해하는 잡귀들을 신앙하여 그 잡귀들로부터 피해를 면하려는 것이다.

11) 금기(禁忌)

신성성을 위해, 不淨을 가리고,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 인간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이다. 신성공간인 제의장소에 사람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뿌리는 것이라든가, 해산 후에 황토를 펴고 금줄을 쳐서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 금기의 예이다.

12) 주부(呪符)

흔히 부적이라고 하며, 이는 재앙이나 잡귀를 물리칠 수 있는 呪力을 가진 글자를 일컫는다.

13) 주술(呪術)

주술은 주력에 의해 인간의 목적을 이루려는 것이다. 민간층에서는 주술이라는 용어보다 방법 또는 예방이라는 용어를 보편적으로 쓰고 方術이나 術法이라고도 한다.

14) 민간의료

전문화된 의학에 의하지 않고 일반인 스스로 그들의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여 병을 고치는 것이다. 민간의료는 병이 났을 때 경험적인 방법이나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스스로 만든 약으로 치료하는 것과 靈力에 의존하여 병을 고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민간신앙에서는 특히 후자에 비중을 두게 된다.

4. 家宅信仰의 概念 및 形態

4-1. 가택신앙의 개념

가택신앙²³⁾은 공간적으로 대개 가내에 위치하는 신적 존재에 대한 신앙으로, 가택신앙은 가택의 요소요소마다 신이 있어서 집안을 보살펴주는 것이라 믿고, 이 신들에게 정기적인 의례를 올리는 것²⁴⁾이다.

다시말해 집이라는 건물 자체를 神體로 하거나 그 건물에 거주하면서 건물의 기능을 보호하는 동시에 그 공간에 사는 가족의 행과 불행에 관계하는 신들에 대한 신앙인 것이다.

이처럼 가택신앙은 가정 단위의 신앙으로, 주거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서 주거 공간이라는 배경 위에 성립된 가장 실제적인 민간신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가택신앙은 거주자의 관점과 애착, 가족관 등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한국전통 주거가 갖는 의미와 공간의 조직구성원리를 엿볼 수 있게 한다.

4-2. 가택신앙의 역사

1) 역사적 연원

가택신앙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주거를 배경으로 형성되어진 신앙이다. 따라서 가택신앙의 역사는 주거형성의 역사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인공적으로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추측되는 집터 중 가장 오래된 것은 후기 구석기 시대의 유적이라고 알려진 공주 석장리 유적지의 집터라 할 수 있다. 이 집터는 약 2만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땅을 파서 만든 움집터로서

23) 가택신앙은 가신신앙 가정신앙, 집단신앙 등으로도 불리워진다.

가택신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 현재 민속학분야에서조차 명확히 정립되어지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본 연구에서는 대문을 경계로 대문안의 모든 공간을 주거공간으로 보고 있으며, 가택신앙의 형태는 크게 가신과 주거건축물에 대한 가택의례로써 나타나고 있기에 가택신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24) 김태근, 앞의 책, p. 18

기둥자리와 불똥 자리, 닭 등이 있어 완연하게 인공적으로 만든 집으로 보여진다.

이 집터에서는 개나 멧돼지, 고래, 거북 모양 등의 조각과 동물모양을 새긴 그림이나 물감 등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그들의 신앙생활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되어진다.



그림 1. 구석기 시대의 집터(공주 석장리)

즉 가택신앙에서 등장하는 神 또는 神體의 모습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경외의 대상이었던 자연물을 신성시함으로써 집안을 보살피고 가족원의 안녕을 기원하였던 것으로 가택신앙의 근본적 사유과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한편 문헌을 통해 보았을 때, 가택신앙의 역사적인 연원은 『三國志』魏志 東夷傳에 나오는 고대 부족국가의 제천의례의 유습²⁵⁾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이것은 제천의례시 하늘의 天神에게 제사지내는 것을 통해 추정하는 것으로, 천신은 모든 신의 근원적인 존재로서, 천신신앙은 모든 신앙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한편, 가택신앙과 무속신앙의 연원을 같은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는 무속에서 위하는 무속신과 가정에서 위하는 가신이 혼합되어 있어서 가택신앙과 무속신앙이 근원적으로 같았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주요 가신인 성주신, 삼신, 조왕신, 조상신 등이 巫神으로서 이들 신에 대한 굿거리가 있고, 가신

25) 고대민족문화연구소, 한국민속대계1, 1980

으로 좌정하게 된 가신신화가 있어, 무신과 가신의 연원이 같을 것²⁶⁾이라는 추정
은 가능하다 할 수 있다.

2) 기능신으로 다양화

한국인의 신관념은 사라진 신(Deus Otiosus)에 근거²⁷⁾한다. 여기서 사라진 신
이란 천신을 일컫는 것으로, 이러한 천신의 모습은 단군신화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다. 단군신화²⁸⁾는 천신의 강림설화이면서 동시에 그 천신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천신의 아들인 환웅이 신단수 아래로 강림하고,
그 후예인 단군이 산신이 되었다는 사실은, 산신신앙이 근원적으로 천신신앙의
변용임을 말하는 것이다. 천신은 사라진 신, 또는 멀리 떨어져 있어 연락이 끊어
진 신이라는 뜻에서 隔絶神이라고도 하는데, 천신인 환웅은 풍백, 우사, 운사라는
기능신을 거느렸다.

이처럼 기능신의 다양화시기를 맞게 되면서 천신의 존재는 더욱 멀어지게 되
었으며, 천신의 1차적인 변용이라고 할 수 있는 산신이 천신의 성격을 지니면서
실질적인 최고신이 되고, 천신이 관장하는 대우주가, 산신이 담당하는 소우주인
마을로 옮겨가게 된다. 마을보다 좀더 작은 우주는 가정이라 할 수 있는데 가신
가운데 으뜸인 성주신앙 역시 천신신앙을 근원²⁹⁾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즉, 가
신 역시 천신의 변용으로서 가옥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기능신을 다양하게 수
반했다고 볼 수 있다.

26) 김명자, 앞의 책, p.272

27) 서영대, 한국고대 신관념의 사회적 의미,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1991, pp.139-156

28) 부록 참고

29) 김태곤, 앞책, p.63

김태곤은 신앙상의 의식과 관련하여 보았을 때 「성주」는 천신이 가택신으로 좌정한 것이기에 그
어원을 천신이라는 말의 「상주(上主)」에서 찾는다. (天神 = 상주 → 성주)

4-3. 가택신앙의 종류와 형태

가택신앙은 크게 가내에 위치하는 家神과 家宅儀禮의 형태로써 나타나고 있다.

4-3-1. 家神

1) 성주신

한 집안의 으뜸신인 성주신은 가옥의 중앙에 위치하면서 집안의 길흉화복을 관장하는 신으로 성주대감, 상량신, 성주조상 등으로 불리운다.

성주신의 명칭은 세가지로 해석되는데, 그 하나는 城主, 즉 군수라는 이름에서 파생된 것이고, 두 번째는 火에서 한역되어 왔다는 것이며, 세 번째는 천신을 나타내는 上主에서 음운이 변하여 성주로 변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세가지 중 어느 것이 옳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다만 성주라고 호칭되는 것이 일반적이다.³⁰⁾

성주신을 상징하는 신체는 두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단지의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한지 형태의 신체로서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신체가 모셔지는 장소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청마루에 모셔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삼신

삼신은 삼신할머니, 지앙할머니, 삼승할망 등으로 불리우며,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女神으로서 자녀의 출산·육아·성장 등을 관장하는 신이며, 그 자리는 안방 아랫목이다.

삼신은 産神 혹은 三神으로 표기하기도 하는데, 우리말에 태(胎)를 가르켜 ‘삼’이라고 하는 것이나, 탯줄을 삼줄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아 삼신은 태신(胎神)으로서 産神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삼신의 신체 봉안은 지역에 따라 다양하나, 삼신자루라 하여 한지로 만든 자루 속에 쌀을 넣어 아랫목 높직이 매달아 놓거나, 쌀을 바가지나 동이에 담고 시렁을 만들어 거기에 엮어놓기도 한다. 이를 각기 삼신바가지, 삼신동이라고 한다.³¹⁾

30) 지춘상 외, 남도민속학 개설, 태학사, 1998, p.401

3) 조왕신

조왕신은 부엌에 있는 신으로 부엌신, 조왕할매, 조왕대감 등으로 불리며, 火神, 재물신으로 인식되고 있다. 조왕이 화신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불을 때는 아궁이를 맡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재물신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아궁이에 불을 댄으로써 음식을 만들기 때문이다.³²⁾

조왕신의 신체는 사기종지로서 이는 조왕중발, 조왕보세기, 조왕물그릇이라 불리워진다.

4) 조상신

조상신은 후손을 보살피 주는 신으로 자리는 안방의 윗목 또는 사당이며 조상할매, 조상 등으로 불리워진다.

신체의 유형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단지나 향아리에 쌀을 가득 채워 창호지로 봉한 것이며, 두 번째는 주머니 속에 쌀을 채워 걸어두는 형태이고, 세 번째는 사당 건축의 축소된 모형이라 할 수 있는 감실이다. 이러한 감실 형태의 신체는 조선조 사당의 영향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당을 마련할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가정에서 사당 대신 감실을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신체가 없이 모시는 가신을 '건궁'이라 하는데 조상신을 안방이 아닌 사당에서 모시는 경우 건궁으로 모시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5) 측간신

측간신은 변소각시, 칩간조신, 정낭각시, 칙시부인, 칙도부인 등으로 불리며 그 이름처럼 젊은 여성이라고 여긴다. 집안의 여러 신들이 수명장수와 평안 그리고 복을 가져다준다고 믿어지는 데 반해 뒷간신만은 노여움이 많아 잘 받들지 않으면 탈을 입으리라 하여 대조를 보인다.

한국전통주거에 있어서 뒷간은 될 수 있는 대로 안채나 사랑채에서 떨어진 데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특히 상류가옥의 안뒷간은 부엌 옆 마당의 디딜

31) 김태근, 앞의 책, 1983

32) 지춘상 외, 앞의 책, p.402

방아간 벽에 붙여두는 것이 보통이었고 심지어 바깥 뒷간을 대문 밖에 두는 일도 없지 않았다. 따라서 밤 늦게 이곳을 드나들 때에는 움추러 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무서움증이 측간신의 관념을 낳았으리라고 생각된다.

6) 터주신

집 울타리 안의 집터를 관할하는 터주신은 지신 또는 터줏대감으로도 불리워지며, '안마당에도 저벽저벽, 뒷마당에도 저벽저벽'이라는 무가에서 알 수 있듯이³³⁾ 주로 집터를 돌아다니고 관할하며 집안의 재산을 수호한다. 즉, 터주신의 영역은 집터를 말할 뿐이고 건물의 수호는 따로 성주가 관장하는 것이다.

터주를 상징하는 신체는 집의 뒷꼴이나 장독대 가까이에, 서너되들이 옹기나 질그릇 단지에 쌀 또는 벼를 담고 뚜껑을 덮은 다음, 짚으로 원추형 모양을 만들어 덮은 터주가리를 만들어 모셔진다.

이 신은 경기도를 비롯한 중부지방에서는 뚜렷한 비중을 차지하나 충청도를 경계로 남으로 내려갈수록 희미해진다.

7) 기타 가신

종류	기능	위치	신체	비고
업신	집의 재운을 관장	뒷걸, 곳간, 쌀독, 지붕 위	사람, 뱀, 족제비, 두꺼비 등 간장	제주도에서는 칠성신이라 불려짐
수문신	잡귀, 악운을 막아줌	대문, 방문 위	업나무, 동물의 뼈, 부적 등	서울과 제주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움
우마신	소의 건강을 담당	외양간 들보, 구유	백설기, 구멍 뚫린 돌	
기타	곳간신, 방아지신, 철룻신, 용왕신 등			

표 4. 기타 가신의 종류 및 위치

33) 정영철, 제주도 전통민가의 공간적 특징 및 의미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논문, 1991, p.48

4-3-2. 家宅儀禮

1) 開基祭

택지가 정해졌으면 그 택지에 터를 닦기 전에 택관이 정해 둔 일시에 開基祭를 지내게 된다. 開基祭는 그 집주인이 집터를 새로 마련하여 地神에게 땅을 파고 다지며 집을 짓게 되어 미안하다고 고하는 동시에 또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무사하게 일이 진행되도록 축원하는 의례인 것이다.

지신에게 공양하는 방법으로는 제수의 일부를 집터의 일척반 정도로 파고 묻거나 비석을 세움으로써, 그 토지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인수했음을 뜻한다.

2) 開工祭

집터를 고르는 작업이 끝나면 목수와 석수의 일이 시작되는 起工으로써, 지관이 정해 준 집의 좌향, 주춧돌의 좌향, 일시에 의해서 입주를 하게 되는데 그 기둥에는 붉은 색종이에 <開工 大吉>이라 써서 기둥이나 도리에 붙이고 <姜太公存比> 등의 글귀를 처음 다듬어 나무에 붙여 공사를 진행함을 알리는 의례인 것이다. 만약 날 받은 날에 고사를 지내지 못할 때는 그 건축인이 허공에 커다랗게 <아무 곳의 아무개네 집을 開工하였다오>하고 세 번 소리침으로써 開工式을 했다고 간주한다.

이처럼 開基祭가 땅에 거주하는 地神을 위한 것이라면 開工祭는 家神을 위한 의례인 것이다.

3) 上樑祭

초석 위에 기둥을 세우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량(樑)을 얹고 도리를 건너고 보위에 동자주를 세우고 나서 上樑祭를 하게 되는데 집의 의례 중에서 가장 성대하게 지내는 제사이다. 이 제의는 이 집 짓고 나서 子孫 창성하고 所願成就해 주 십사하고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제의이다. 보통 상량을 한 해 月, 日, 時 등을 상량대에 적어 놓으며 심지어 목수 이름과 집의 坐向까지 적어 놓는다. 그러므로 상량제는 상량대를 얹어 놓을 때 행하는 것으로 집안이 평안하고 무사하며 영원을 의미하는 의례인 것이다.

4) 人宅

집을 다 짓고 나서 吉日을 택하여 人宅한다. 이 날은 동이 터서 점점 밝아오는 光明을 안고 家長이 빈손으로 들어가며 뒤이어 가족들은 무엇이랴도 손에 들고 들어가는데 특히 이 날은 아무 것도 집밖으로 나가는 것을 삼가는 날이다. 이 의식은 성주와 조왕신에게 제물을 정결히 차리고 향을 피우며 정수를 사발에 받쳐 놓아 제례를 행하는데 제배가 끝나면 정화수를 든 사발을 들고 다니면서 문이나 창, 방의 구석구석, 부엌, 측간 등에 버드나무로 찍어 뿌린다. 그러면서 <天地의 陰陽이시여, 해와 달과 별님이시여, 빛을 내어 잡귀를 물리치고 그저 굿은 일도 변하여 좋은 일이 되고 우리 太上老君을 위하듯 슬슬히 풀어 주소서>하고 외친다.

이처럼 입택고사 중에 성주나 조왕신 등 가신들이 배례의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의 등장은 입택의례를 통하여 가신의 활동이 시작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사람과 가신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일체화되는 것이다.

5. 家神을 통해 본 韓國傳統住居空間의 意味

천재지변을 비롯해 각종 우환과 병마, 고난과 제약은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것이기에 인간은 고대로부터 전지전능한 신의 능력을 빌어 생활을 영위해 왔으며, 인간의 생활을 담는 주거에는 요소마다 이러한 신들이 거처하여 인간에게 심적 평안과 의미를 부여해 왔다.

이처럼 한국전통주거의 거의 모든 공간에는 신이 좌정해 있다. 하지만 그 출현 빈도와 위계로 보았을 때 대체적으로 성주신, 삼신, 조왕신, 조상신이 비교적 많이 섬겨져³⁴⁾ 주거공간에 있어서 대청마루, 안방, 부엌, 사당 등이 비중있는 공간이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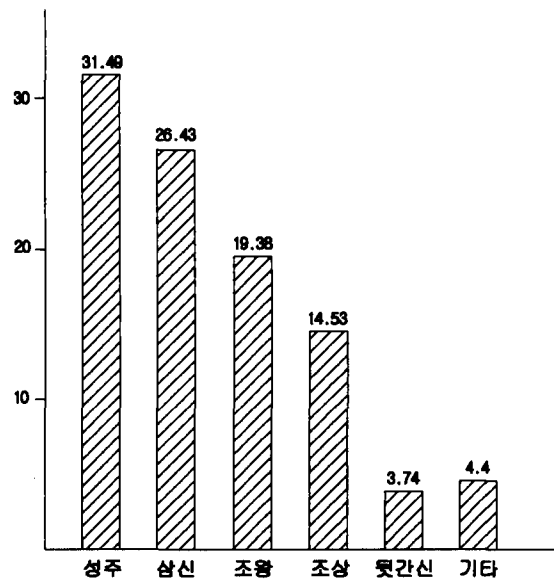


그림 2. 가신 비율(%)

즉 그 공간을 관할하는 신의 위치가 생활공간의 중요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신들을 통해 그 좌정공간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34) 김광언, 韓國의 住居民俗誌, 민음사, 1988, p.67
82년 전북, 충북, 경북, 경기지방의 조사를 기초로 한 것임

가신은 天神, 人神, 雜神이라는 성격상 크게 上位神, 中位神, 下位神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上位神에 속하는 城主神과 中位神에 속하는 삼신, 조왕신, 조상신, 측간신 그리고 하위신에 속하는 우마신, 도장지신, 수문신, 철룽신, 용왕신으로 나눌 수 있다.³⁵⁾

位階	性格	家神	坐定空間	備考-居住者
上	天神	성주신	대청마루	호주
中	人神	삼신	안방	안주인
		조왕신	부엌	안주인
		조상신	사당	조상
		측간신	측간	첩
下	雜神	우마신	축사	소와 말
		도장지신	곳간	곡식
		수문신	대문	문
		철룽신	장독대	장
		용왕신	우물	물

표 5. 家神의 위계와 좌정공간

35) 김태곤, 한국무속연구, 집문당, 1982, p.21

김태곤은 가신을 분류함에 있어 上·中·下의 위계 구분을 하고 있다. 본 연구 역시 표의 비고 부분을 통해 보았을 때 김태곤의 上·中·下의 위계 구분이 가능하다고 보며 이에 天神, 人神, 雜神의 성격을 기준으로 上·中·下의 위계로써 가신을 구분하였다.

5-1. 上位神 - 天神의 공간

1) 대청마루 - 城主神

대청마루는 안방과 건넌방 사이에 위치하여 이들 방으로 출입하는 전실 역할을 하며 방과 마당 사이를 연결해 주는 가족공유의 생활공간이다. 뿐만 아니라, 대청마루는 집의 중앙에 위치하여 구심점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대청마루 위의 대들보는 필요 이상의 굵은 목재를 사용하여 주거의 권위를 대신하는 상징적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청마루에는 가내의 평안과 부귀를 담당하는 가옥의 최고신인 성주신이 존재한다고 믿어 대들보 및 상기둥³⁶⁾의 상부에 단지 또는 한지 형태의 신체를 모시고 의례를 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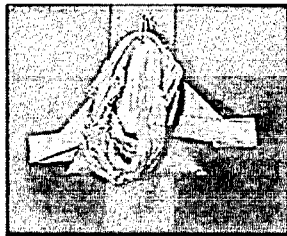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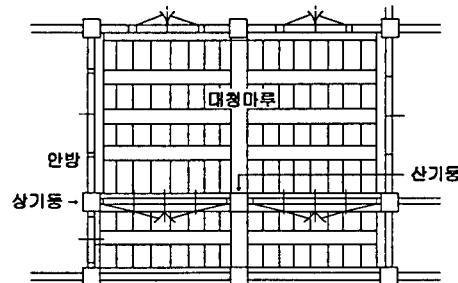


그림 3. 城主神의 神體

36) 장기인, 한국건축대계5 - 목조, 普成閣, 1998, p.136

대청 뒷간 안쪽에 세운 독립기둥을 산기둥 또는 어머니기둥이라고도 하며, 안방과 마루방 사이에 있는 기둥을 상기둥(上柱)이라 한다.



한 집안의 으뜸신인 성주신은 天上과 地上을 연결짓는 매개체로서, 천신의 모든 권한을 대행하는 신이다. 따라서 성주신의 본질은 天神이며, 성주신앙의 신앙적 본질 역시 인간에게 최대의 권력자인 天神을 가옥내에 봉안함으로써, 그 天神의 가호에 의해 생활상의 현실적인 諸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이다.

성주신의 명칭³⁷⁾은 세가지로 해석되는데, 그 하나는 城主, 즉 군수라는 이름에서 파생된 것이고, 두 번째는 火→부루→城主(火→불주→城主)에서 한역되어 왔다는 것이며, 세 번째는 천신을 나타내는 上主에서 음운이 변하여 성주로 변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세가지 중 어느 것이 옳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다만 성주라고 호칭되는 것이 일반적이다.³⁸⁾

이와같이 성주신은 명칭 또는 봉안장소에서부터 천신적 요소를 지닌 상위신으로서의 가신임을 미루어 볼 때 좌정공간인 대청마루 역시 신성한 공간으로 인식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성주무가의 내용중에 「제비원 솔씨 받아 용문산에 던졌더니, 그 솔이 자라 크니 소부동이가 자라난다. 소부동이가 점점 자라 대부동이가 되었구나...청장목 되고 황장목 되고 도리기둥이 되었구나, 너집성주는 초가성주, 나집성주는 와가성주 ...」³⁹⁾ 라는 대목이 있다.

즉, 이 노래는 천계의 하강신이 인간에게 솔을 심어 집 짓는 법을 마련해 주었다는 건축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성주신의 출현과정을 곧 건축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7) 성주의 명칭에 대한 이해를 위해 '성주'에 대한 민속학에서의 논의를 약간만 언급하고자 한다. 성주신의 명칭은 제주도신화에서는 남선비, 정주목신으로, 경북안동신화에서는 유광덕으로, 부산 동래에서는 안심국으로, 경기도 화성에서는 황우양씨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학자들마다 성주의 표기를 城主, 星主, 成主, 成造 등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이능화는 성주의 어원을 '부루(불)'로 보고 제정일치시대의 군주의 명칭인 '國主'에서 '城主-행정장'과 '城主-가신'으로 발전했다고 보는 반면, 김태곤은 성주는 天神이 가택신으로 좌정한 것이기 때문에 천신의 본래적인 용어인 '上主-옥황상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家宅信仰 자체는 한자표기가 있기 이전부터 있었던 고대신앙형태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의 용어로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8) 지춘상 외, 앞책, p.401

39) 김태곤, 앞책, pp.74-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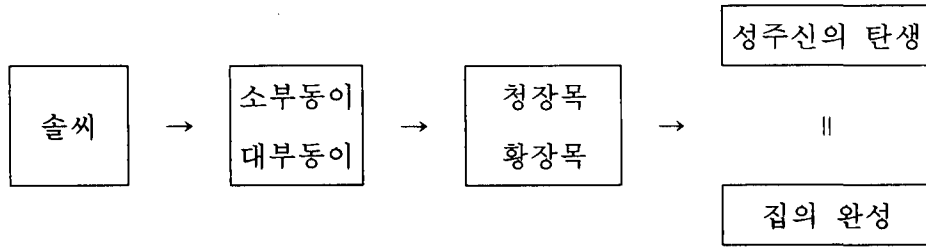


표 6. 城主巫歌에서 나타난 성주신의 탄생 = 집의 완성

이는 인간에게 있어서 최초의 건축행위가 성주신과 관련이 있음을 뜻하는 것이며, 또한 가옥의 주재료로 소나무가 주로 쓰인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경북 흥해지방의 성주무가에서는 성주신과 호주와의 관계가 잘 나타나고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햇곡식의 단지를 성주단지라 부르며 ... 이 단지는 호주의 대가 바뀔 때마다 반드시 새로 교환된다」

「성주단지와 호주는 동년배(同年輩)이다」⁴⁰⁾

라는 말에서 성주신과 호주가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새로 집을 짓는 것은 성주신의 성립을 의미하고 그것은 동시에 성주신이 그 집의 호주로서 성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전통주거의 대청마루는 天神이자 建築神인 성주신이 자리하는 곳이며, 성주신에 대한 배례가 이루어지는 장소로써 신성한 공간으로 생각되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대청마루가 갖는 신성성과 위계성은 북통구스족과 Oronchun족의 천막 구조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들 주거 내부에는 그림과 같이 말루(malu), 또는 마로(maro)라고 부르는 장소가 위치해 있다. 이러한 장소는 위계가 높은 장소로서 여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신성한 공간으로 여겨졌다. 예를 들어 북통구스족의

40) 三品彰英, 古代祭政 と 穀靈信仰, 평범사, 1973

정영철, 제주도 전통민가의 공간적 특징 및 의미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논문, 1991, p.47에서 재인용

천막 입구 부근의 좌우는 cogoko 또는 congo라 불리며, 그 congo의 안쪽 좌우의 장소는 be라 불린다. 그리고 입구정면 맞은 쪽에는 malu 또는 maro라는 장소가 위치해 있다. malu라 불리는 장소에는 신령의 우의가 봉안되어 신성시되었으며 통상 가족은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존경시되는 노인이나 남성의 내객만이 때로 이 자리를 차지한다⁴¹⁾고 한다. 또한 Oronchun족은 이곳에 그들의 家神인 Ju-borkan을 봉안하는데 Ju-borkan의 Ju는 Oronchun족 말로 천막 또는 가족이란 말이며 borkan은 神을 가르키는 것이므로 Ju-borkan이란 家神이란 뜻이 된다.⁴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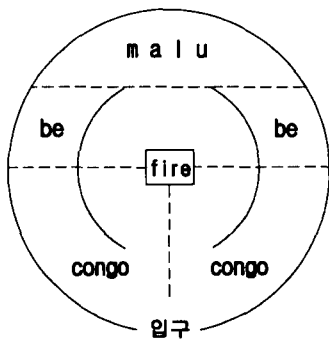


그림 4.
북통구스족의 mal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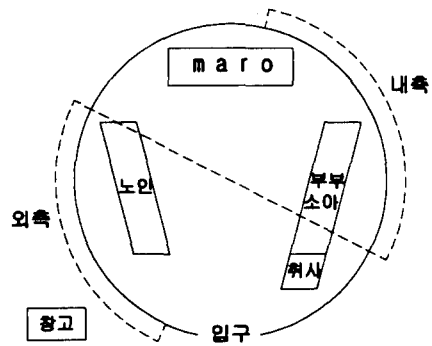


그림 5.
Oronchun족의 maro

따라서 대청마루가 갖는 이러한 聖의 의미는 실의 배치 및 기타 계획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대청마루의 성격을 크게 구조와 높이, 크기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41) 이병도,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76, pp.627-628

42) 정영철, 앞논문, p.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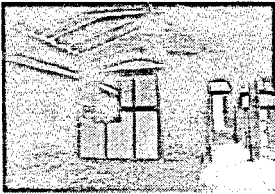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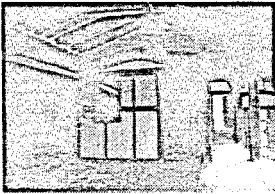

구조		흙과 온돌, 마당과 안방의 중간적 구조로서 하늘과 땅으로 열린 중간적 의미를 지님
높이		방바닥이나 부엌바닥보다 높게 마루를 깔아서 내부공간 중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음
크기		연등천장으로 인해 가장 넓고 높은 공간을 형성하고 있음

표 1. 대청마루의 공간적 특징

이와같이 대청마루는 주거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주거생활의 중심공간이 되며 가옥내의 가장 중요한 실로 여겨져 주된 의례가 대부분 여기서 행해지는 男性의 중심공간이었다. 이는 건축물로서 배치, 형태, 장식 등의 계획적 요소들을 통해 공간적으로도 중요성이 인식되었을 뿐만 아니라 봉안되는 성주신이 다른 신보다 높은 위계를 지닌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5-2. 中位神 - 人神의 공간

1) 안방 - 三神 - 안주인

안방은 식사, 취침 등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일상성의 중심으로 聖性的의 중심인 대청마루와는 대조적인 공간이다. 이는 주거공간에서 事物的으로도 표현되어 안방에는 천장이 만들어지고 방을 에워싸는 六面에는 벽지가 붙여져 모든 구조체가 감추어지므로, 구조체가 노출되는 대청마루와는 대조적이다.

또한 이러한 대조적 성격은 이들 장소에 봉안되는 신들 즉, 대청마루에 봉안되는 성주신과 안방에 봉안되는 삼신에 의해서도 표현되어진다. 産育神인 삼신은 대청마루의 중앙인 대들보에 모셔지는 성주신과 달리 일반적으로 안방의 한쪽 구석 상부에 하안종이로 만든 신체를 늘어뜨려 모셔진다. 또 출산시 집 대문에 금줄을 쳐 외부인 특히 부정에 관계하는 사람의 출입이 엄금되는 것에서부터 삼신이 죽음이나 외부의 부정을 싫어하는 것은 분명하나, 이 신은 그 존재의 기반상 출산의 부정을 전제로 해서만 존재하는 것이므로 속된 곳, 부정한 것을 싫어하는 성주신과는 대조적이다. 이처럼 안방에는 자녀의 출산·육아·성장 등을 관장⁴³⁾하는 가신인 삼신이 존재한다고 믿어 안방 벽 또는 시렁 위에 삼신바가지나 삼신동이를 모시고 의례를 행하였다.



그림 6. 三神의 神體

43) 제주도 삼신할망신화를 보면 삼신은 아이를 점지해주고 아이가 15살이 될 때까지 보호해 주는 신으로 나타나는데, 중국의 경우에도 '母神'이라고 하여 아기를 점지해주고 16살까지 보호해주는 신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아이를 점지해 주는 신의 존재는 아시아권에서 분포정도가 넓은 것으로 생각된다. (母神의 존재 - A. Genep, 통과의례, 김경수 역, 을유문화사, 1985, pp.99-102)

삼신⁴⁴⁾은 産神 혹은 三神으로 표기하기도 하는데, 우리말에 胎를 가르켜 '삼'이라고 하는 것이나, 탯줄을 삼줄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아 삼신은 胎神으로서 産神을 의미하는 것⁴⁵⁾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삼신의 좌정 공간인 안방은 여성의 專用空間으로서 출산시 출산을 하는 장소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삼신 성립의 유래와 내력을 밝히고 있는 『초공본풀이』⁴⁶⁾를 통해 주거의 가장 안쪽 장소로서 안방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공본풀이>

옛날 임정국 대감과 그 부인 김진국이 큰 절에 시주하고 백일불공을 드려 딸아기를 낳았다. 딸아기 자지명 아기씨가 15세 때 그 부모가 다른 지방으로 벼슬살이를 떠나게 되었다. 딸을 데리고 갈 수가 없어 방안에 가두어 문을 잠근 후, 종에서 문구멍으로 밥을 주며 키우도록 당부하고 집을 떠났다. 이때 황금산 도단땅 절의 주자 선생이라는 승려가 자지명왕 아기씨에게 시주를 받으러 왔다. 주자 선생은 요령을 흔들어 잠긴 방문을 열고 시주를 받은 뒤, 아기씨의 머리를 3번 쓸어주었다. 그 뒤 아기씨는 잉태했고 임대감 부부는 아기씨를 내쫓았다. 집을 나온 아기씨는 이 중을 찾으러 산, 사찰에 가서 중과 함께 환속하며 삼신이 된다.

여기서 주인공 자지명아기씨의 외출을 금지하거나 대문을 폐쇄하고 또 밖에서는 얼굴조차 볼 수 없었다는 것은 집의 內外 장소질서가 엄격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엄격한 內外秩序가 깨어져 아기씨가 회임, 출산하게 되었으나

44) 삼신의 한자 표기를 삼이라는 숫자를 신성시하는 관념이나, 巫神圖에서 볼 수 있는 세명의 여성신의 그림과 관련지어서 三神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택신인 삼신과 三神은 다른 것으로 여겨진다. 삼신의 삼은 母胎의 우리말인 '삼'에서 비롯된 것을 한자로 음기하는 과정에서 쓰인 것이며, 한자표기를 하자면 직능을 고려할 때 産神으로 표기하는 것이 적합한 듯하다. (민속학 회편, 한국민속학의 이해, 문학아카데미, 1994, pp.147-148)

45) 지춘상 외, 앞책, p.404

46) 진성기, 남국의 무가, 제주민속문화연구소, 1968, pp.37-50

제주도 큰곳에서 심방이 노래하는 巫祖神 신화, 또는 그 신화를 노래하고 기원하는 제의절차를 말한다.

중을 찾아 다시 환속하여 삼신이 되고 그리하여 가장 안쪽 장소인 안방에 좌정함으로써 内外秩序가 재구축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여성이 기거하는 건물들은 안쪽 깊숙한 곳에 그리고 남성의 공간은 바깥에 두는 것은 일종의 이상형으로서, 남향집의 경우 남성의 공간은 동쪽 또는 동남쪽에, 여성의 공간은 북쪽 또는 북서쪽에 위치하기 마련이었다. 이것은 男左女右라는 음택론과 일치하는 것으로, 왼쪽은 양이고 오른쪽은 음이라 하여 각각 남자와 여자를 상징하는 것이다.⁴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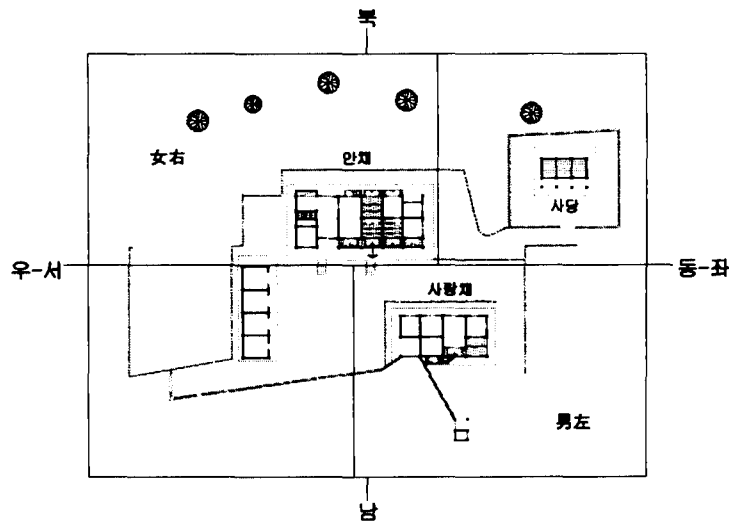


그림 7. 男左女右의 주거공간(장흥 위성렬 家)

또한 안방을 북쪽에 두는 것은 상징적 방향의 암시으로써 북쪽은 水의 방향, 즉 생명 잉태의 공간을 상징하기 때문에 혼인, 출산의 공간으로서 안방을 북쪽에 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안방 내부에는 아랫목, 윗목이란 공간질서가 있는데 이는 바로 아궁이와 관계되는 것으로, 즉 부뚜막 또는 아궁이에서의 거리에 따라 가까운 쪽을 아랫목, 먼쪽을 윗목이라 하는데 이는 아래, 위라는 상하의 위계에서 이름 붙여진 것이 아니라 아궁이에서 연도 출입구의 상하관계에서부터 명명된 것이다.

47) 김광언, 주민생활과 민속, 공간, 1985, p.139

이러한 아궁이의 불과 불씨는 주거 자체와 내적으로 결부되어, 불의 지속은 가계(家系), 가운(家運)의 유지와 직결되며 불씨의 단절은 곧 가계의 단절을 의미한다.⁴⁸⁾ 이처럼 불씨는 주거 그 자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며 따라서 그 불씨는 주거의 가장 안쪽에 장소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가장 안쪽의 불씨가 안방에 있어서의 아늑함의 근거로써 작용을 하며 안방 내부공간질서의 원점이 되는 것이다.

안방 내부의 공간질서가 아궁이와 관계되는 사실은 이사의례(移徙儀禮)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사의례는 이사의 방위나 일시에 관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안방과 부뚜막에 관계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사의례>⁴⁹⁾

- ① 솔속에 요강을 넣고 간다.
 - ② 요강에 소금을 넣고 큰 솔 속에 넣어 이사할 집으로 옮길 때 제일 먼저 갖고 들어간다.
 - ③ 이사한 안방에 밥솥을 처음 놓으면 풍년이 된다.
 - ④ 밥공기에 쌀을 수북히 담아 한가운데에 양초불을 켜 요강 속에 놓아 이사간 집의 큰방 중앙에 놓는다.
 - ⑤ 이사간 방의 중앙에 솔을 놓고 쌀을 뿌리고 양초불을 켜다.
 - ⑥ 이사 할 때는 불씨를 끄지 않고 켜채로 갖고 간다.
 - ⑦ 이사한 집을 방문할 때는 성냥, 양초 등을 사가지고 간다.
-

이처럼 이사의례의 대부분은 안방에서 솔, 요강을 사용하여 행해지는데 솔, 요강은 각각 식사와 취침, 배설에 관계되는 용기로 부엌과 안방을 뜻하는 것이다. 즉 이사의례 때 이들 용기를 주거의 가장 안쪽 장소에 놓음으로써 이사 때에 생기는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재구축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렇게 안방은 신과의 교류를 통해서 열려진 공간임과 동시에 함부로 침범할

48) 최인학, 제의와 여성, 한일비교민속심포지엄, 1983

49) 배도식, 한국의 이사풍속, 민속학회, 1985

수 없는 신성한 공간으로, 그 공간적 특성 즉 여성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2) 부엌 - 竈王神 - 안주인

부엌은 안방 옆에 거의 붙어 있는 공간으로서, 안방과 더불어 대표적인 여성공간이다.

부엌을 여성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은 방위의 개념에서도 보여지고 있는데, 『三國志』魏志 東夷傳 弁辰條에서는 「집에 부엌을 설치하는데 대부분 집의 서쪽에 시설된다」⁵⁰⁾는 기록이 있다.

이것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여성의 기거공간인 안채가 북서쪽에 위치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이미 상고 시대부터 부엌의 위치가 특정한 방위에 의해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부엌에는 아궁이와 부뚜막을 관장하는 조왕신이 존재한다고 믿어 부뚜막 위에 조왕중발 또는 조왕의 초상을 걸어 그 공간을 신성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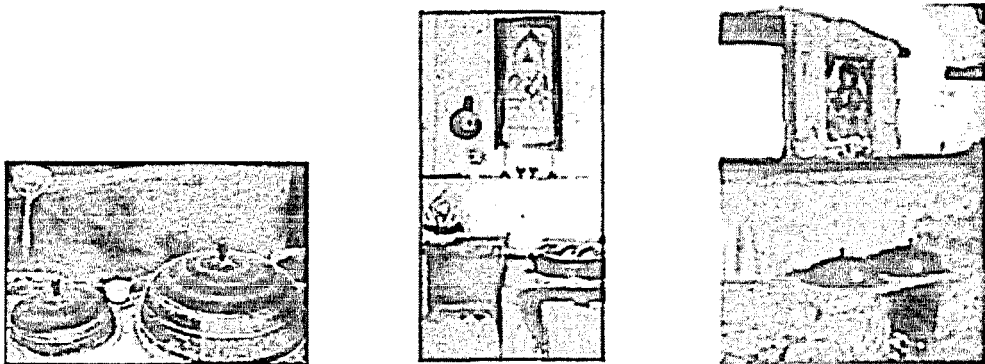


그림 8. 竈王神의 神體

조왕신은 火神 또는 財物神으로도 인식되고 있는데, 조왕신이 火神으로 인식되

50) 『三國志』魏志 東夷傳 弁辰條 - 「弁辰雜居 亦有城郭 弁辰與辰韓雜居 衣服居處與辰韓同 言語法俗相似 祠祭鬼神有異 施竈皆在戶西」

고 있는 것은 아궁이에 불을 지핌으로써 방의 온도가 결정되기 때문이며, 재물신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왕신은 中位神의 범주에 속하는 人神으로 따라서 조왕신의 좌정공간인 부엌 역시 안방과 같은 격으로써 중요시되었다. 이러한 조왕신 성립의 유래와 내력은 『문전본풀이』 51)에서 노래되고 있다.

<문전본풀이>

여산부인은 노일제대귀일의 딸의 핏에 빠져 재산을 탕진한 남편 남선비를 찾아 온다. 그러나 여산부인은 노일제대귀일의 딸에 의해 물에 빠져 죽는다. 이에, 일곱 아들은 지혜를 짜내 노일제대귀일의 딸의 진면목을 밝히고, 도환생꽃을 구해와 어머니 여산부인을 소생시킨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춘하추동 사계절을 물속에서만 살았으니, 몸인들 춥지 않겠습니까, 하루 세 번 더운 불을 쬐면서 조왕할머니로 앉아 얻어먹고 계십시오” 한다.

이처럼 조왕신은 人神이라는 신의 위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좌정공간인 부엌의 향 또는 부뚜막에 아래와 같은 장소적 질서를 부여하였다.

· 부엌의 향 - 『民宅三要』에 의하면 대문, 主房 다음으로 부엌의 향이 고려되었는데,⁵²⁾ 일반적인 부엌의 향은 동향이나 동남향을 길향으로 쳤고, 동북향은 흉하다고 하였다.⁵³⁾ 이는 아궁이는 불을 때는 곳이므로 火에 속하고 火는 木을 생하니, 木은 동쪽이고 火는 남쪽에 해당되므로 불을 피우는 아궁이는 동쪽이나 동남쪽이 길하기 때문이다. 또한 동북향이 흉하다는 것은 鬼門思想⁵⁴⁾에 의해 북

51) 한국문화상징사전, ㄴ-부, 두산동아, p.318

52) 현두용, 한국건축의 양택론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1977, p.37

53) 김서경, 집과 운세, 현암사, 1989, p.128

54) 鬼門이란 귀신이 있다는 방위로서 점술가들은 귀신이 드나든다고 하며, 매사에 꺼리는 동북향을 가르킨다. 중국설화에 의하면 중국 동북쪽 수만리에 도삭산이 있고, 이 산중에 죽은 사람의 넋이 모이는데, 이 사자귀가 드나드는 문이 북동쪽으로 난 귀문이라 하며, 흑설에는 도삭산에 가지가 사방 사십리에 뽕은 큰 복숭아나무가 있는데, 그 북동쪽 가지에 온갖 귀신들이 모여서 사람을 죽인다고 하여 북동의 방위를 꺼린다고 한다.

동 혹은 남서향을 피한 이유라 할 수 있다.

· 부뚜막의 형태 - 『林園經濟志』에서는 부뚜막이 갖추어야 하는 형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作窰法，長七尺九寸，上象北斗，下應九州，廣四尺象四時，高三尺象三才，口闊一尺二寸象十二時，安兩釜象日月，突大八寸象八風」⁵⁵⁾

이것은 우주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변화의 원리를 묘사한 것으로,⁵⁶⁾ 부뚜막이 곧 우주의 형태를 축소, 모방한 소우주로 인식되었으며 조왕신과 함께 신성한 공간으로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부뚜막의 재료 - 『山林經濟』에 의하면, 부뚜막을 바를 때에 쓰이는 흙은, 겉을 한뼘쯤 걷어 내고 그 속의 깨끗한 것으로 하고, 새벽에 길어 온 깨끗한 물과 향수를 섞어서 이겨 바른다고 설명되어 있다. 부엌은 신성한 곳이기 때문이다.

또한 『窰王動土經』이란 巫經에는 「東方土神 動土經，南方土神 動土經，西方土神 動土經，北方土神 動土經，中央土神 動土經…上界窰王 動土經 中界窰王 動土經 下界窰王 動土經」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는데, 이것은 지신에 의한 동서남북 중앙의 장소적 질서와 더불어 조왕신에 의한 상중하의 장소적 질서가 확립됨을 뜻하는 것이다. 이 상중하의 장소적 질서는 중앙에서 수직축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왕신은 상하 수직축의 중심이 되는 곳에 위치한다. 따라서 조왕신은 주거를 중심화, 내부화하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전통주거에서의 부엌은 조왕신과 함께 수직방향의 장소적 질서형

55) 林園十六誌，第九志，贖用志 卷一，營造之制 <窰制>

길이는 일곱 자 아홉 치로 하니 위로는 북두칠성을 본뜨고, 아래로는 9주에 대응함이요, 너비는 넉 자이니 사시(四時)를 본뜬 것이요, 높이는 석자이니 삼재(三才)를 본뜬 것이다. 아궁이의 폭은 한 자 두 치이니 12시를 본뜬 것이요, 두개의 솥을 얹힌 것은 해와 달을 본뜬 것이요, 부엌고래의 크기가 여덟 치인 것은 팔풍(八風)을 본뜬 것이다.

56) 강영환, 집의 사회사, 웅진출판, 1993, p.207

성과 관련되어 주거내 중심공간으로 여겨졌으며 우주의 형태를 축소, 모방한 소우주로 인식되었는데, 이는 浮動性의 아궁이를 통해 공간적으로도 표출된 것이다.

3) 사당 - 祖上神 - 祖上

우리나라에서 조상숭배의 관념이 보편화되기 시작한 시기는 중국 유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고려말기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시기에 성리학이 수입되면서 주자의 가례가 조상숭배의 관념을 보편화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조선 시대에 이르러 치국이념이 성리학인 까닭에 주자의 가례는 상대적인 힘을 가지고 귀족에게 있어서 효와 경을 강조하게 되었고 이러한 의미에서 조상은 이승에서 후손과 함께 존재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전통주거는 生者인 후계와 死者인 조상이 함께 거주하는 장소였던 것이다.⁵⁷⁾

다시말해, 죽음의 공간인 사당이 삶의 공간인 살림집에 공존하게 된 것이며 그 안에는 죽은 조상의 이름을 새긴 신주와 함께 후손을 보살피 주는 가신인 조상신이 좌정되었다.

이처럼 주거내에는 조상신이 존재한다고 믿어져 사당 또는 안방 윗목에 쌀을 가득 채운 단지 혹은 주머니를 걸어두거나 사당 건축의 축소된 모형이라 할 수 있는 감실을 모시고 의례를 행하였다. 이러한 감실 형태의 신체는 조선조 사당의 영향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당을 마련할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가정에서 사당 대신 감실을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9. 祖上神의 神體 - 감실

57) 고대민족문화연구소, 한국민속대계 1, 1980, pp.685-686

조상신은 주로 한이 많거나 색다르게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 조상신으로 들어왔게 되는데 따라서 天神의 요소를 지닌 성주신과는 달리 人神의 범주에 속하는 가신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조상숭배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었던 시대적·사상적 배경으로 인해 조상신은 성주신 이상으로 중요시되었으며, 이것은 주거내 조상신이 좌정하는 장소인 사당건축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사당터는 집을 지을 때 먼저 정하여 다른 건물보다 높은 자리에 세웠으며, 주위에 담을 두르고 출입문을 달았다. 그리고 사당의 위치는 정침의 동쪽으로 하는데,⁵⁸⁾ 이는 동쪽에서 해가 뜨는 사실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옛부터 동방은 생명이나 부활의 상징이며 밝음의 표상으로 믿어져 왔기 때문이다. 사당은 주로 3間으로 지어졌으며, 내외부에 단청을 입히고 벽화를 그렸고, 神門이라 하여 세칸 반퇴를 붙인 거대한 문을 따로 세우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사당은 死者의 공간이기는 하나 人神인 조상신의 공간으로서 주거내 안방, 부엌의 공간위계만큼이나 중요시되었으며 또한 시대적·사상적 배경으로 인해 天神의 공간인 대청마루 못지않게 聖所의 공간으로 여겨졌다.

이와같이 한국전통주거는 주거내에 사당과 같은 죽음의 공간이 동시에 존재함으로써 신과 인간이 공존하는, 공간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4) 측간 - 측간신 - 첩

‘뒷간’, ‘정랑’ 등으로 불리는 이 공간은 부엌의 반대편 또는 부엌과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된다. 측간은 부속건물 중 하나지만 대·소변을 보는 인간의 생리공간으로서 필수적이기 때문에 四柱에 포함되었다.⁵⁹⁾ 하지만 측간이라는 공간 특성상 주거내 공간 중에서 가장 더러운 곳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변소는 신체가 노출되는 개인공간으로서 서로 회피되어야 할 곳으로 인식되어졌는데, 이러한 공간의 개념은 이곳에 거처하는 측간신의 성격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측간을 관장하는 가신인 측간신은 대개 신체를 모시지 않는 건궁신앙으로 존재한다. 대부분의 가신이 집안의 평안을 위해 돌보는 善神인데 반해, 측간신은

58) 고대민족문화연구소, 앞책, p.690

59) 장용득, 명당론, 에밀레 미술관, 1973. p.110

늪지 않는 첩신으로 신경질적이고 노여움을 잘 타므로 건드리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는 경원의 대상으로 여겨졌다. 이는 한국전통주거의 변소가 갖는 깊고 어두움으로 인해 생기는 위험에 대한 대비를 신관념에 반영시킨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간과 첩신의 관계는 가장 허술한 구조로 변소를 만드는 제주도 무속의 『문전본풀이』⁶⁰⁾에 잘 묘사되어지고 있다.

<문전본풀이>

남선비와 여산부인이 부부가 되어 아들 7형제를 낳고 가난하게 살았다. 남선비는 부인의 권유에 따라 배를 타고 곡식장사를 떠났는데 오동고을에 닿았다. 이 고을의 간악한 여인 귀일의 딸은 곧 남선비를 유혹하여 돈을 빼앗으려 했다. 남선비는 이 여인의 흘림에 빠져 돈을 빼앗기고 눈까지 멀어졌다. 할 수 없이 귀일의 딸을 첩으로 삼아 겨죽을 먹으며 연명해 간다. 기다리다 지친 여산부인은 배를 타고 남편을 찾아 오동고을에 닿았다. 겨우 남편을 찾고 보니, 첩이 나타나 아양을 떨며 목욕하러 가자고 유인하여 물에 빠뜨려 죽여 버린다. 그리고서는 첩은 본부인인 척 가장하여 남선비와 같이 고향으로 돌아온다. 부모를 맞은 7형제 중 똑똑한 막내아들이 친어머니가 아님을 알아차리고 형들을 깨우친다. 첩은 이 눈치를 채고 장애물인 아들들을 죽일 계략을 꾸민다. 배가 아픈 체하며 뒹굴며 남편에게 점을 쳐 오게 하고, 아들 7형제의 간을 내어 먹어야 낫겠다는 점괘를 꾸며낸 것이다. 7형제의 간을 내어 먹고, 한 배에 셋씩 세 번을 낳아 아들 9형제를 낳겠다는 말이 그럴싸하여 남편은 칼을 간다. 이를 안 막내아들이 형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 멧돼지 간 여섯을 내다가 형들 간이라고 계모에게 드린다. 먹는 체하며 자리 밑으로 숨긴 것을 걷어치워 계략을 천하에 폭로한다. 겁이 난 첩은 변소로 도망가 목매어 죽어 변소신 칙도부인이 되고, 면목없는 아버지는 올래로 내닫다가 정낭에 걸려 죽어 정주목신이 된다. 7형제는 물에 빠져 죽은 어머니를 살려내어 부엌의 신인 조왕으로 앉히고, 아들 중 위로 5형제는 오방토신이 되고, 여섯째 아들은 뒷문전(상방의 뒷문신)이 되고, 똑똑하고 역력한 막내아들은 일문전(상방의 앞쪽 문신)이 되었다.

60) 현용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pp.267-268

이처럼 비록 가장 더러운 곳이기도 하지만 대·소변이라는 생리적 욕구는 생명이 지속되는 한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측간은 주거내 필수적인 시설물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비록 惡神이기도 하지만 첩이라는 人神으로 묘사되리만큼 중요하게 인식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人神이라는 위계는 측간이라는 공간의 위치와 의미에 있어 많은 중요성을 부여하였는데 『山林經濟』에는 특정한 방위에 따른 길흉이 설명되어져 있다. 그 방향을 살펴보면 寅(동북동), 卯(동), 未(서남향)은 대길이고, 巳(남동남), 子(북)향은 자손이 길하고 牛(남)은 귀인이 나며, 申(남서남)향은 구설이 끊기지 않으며, 서방은 자손이 효도하지 못하고, 戌(서북서)향은 먼저 빈(貧)하나 후에 부(富)하다고 했으며, 亥(북서북)향은 대흉하다고 하였다.⁶¹⁾

그러나 민간전래상 측간은 집 내외에 안채와 바깥채에 한 개씩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子, 丑, 申, 亥향⁶²⁾, 즉 북쪽과 남서쪽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어느 방향도 무관하다고 하였다.⁶³⁾ 또한 측간은 가택신 중 유일한 악귀인 측신이 존재한다고 믿음으로써 “측간은 멀수록 좋다”는 말과 함께 대지의 구석에 많이 배치되었다.

즉, 측간이라는 공간은 민간전래상 내려오는 방향성과 가택신앙적 의미에서 내포하는 상징성에 의해 독특한 장소적 특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

61) 김정기, 건축문화, 1983.10, p.93

62) 자-북쪽, 축-동북쪽, 인-동북쪽, 묘-정동쪽, 진-동남쪽, 사-동남쪽, 오-정남쪽, 미-서남쪽, 신-서남쪽, 유-정서쪽, 술-북서쪽, 해-북서쪽

63) 남호현, 한국 전통주거의 신성공간에 관한 연구, 홍익대대학원 석사논문, 1987, p.70

5-3. 下位神 - 雜神의 공간

1) 축사 - 牛馬神

소와 말, 특히 소는 농경사회에서 가장 긴요한 가축이었으며, 주생활 수단으로써 크게 이용되었다. 따라서 짐승의 공간인 축사에도 공간적인 중요성이 부여되었는데 이에 따라 소와 말을 추위와 도둑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축사는 주거내에 만들어지게 되었다. 심지어 북부지방의 양통집에서는 사람과 거의 같은 공간에 소와 말이 거주할 정도로 가까운 곳에 축사가 위치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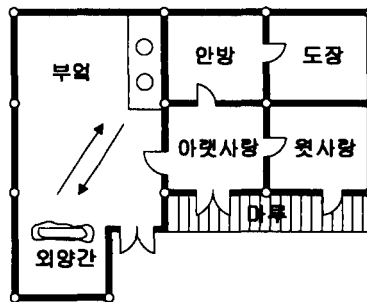


그림 10. 양통집의 축사배치

우리나라의 축사에는 소와 말의 건강과 무사를 담당하는 쇠구영신 또는 우마신이라 불리는 가신이 있다고 믿어져 이들 공간에 조차도 많은 의미와 신성성이 부여되어졌다. 이들 공간의 좌향은 집의 좌향에 따라 방향성을 달리 하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동향에서 남향 사이에 배치되었고, 소에게 죽을 쭈는 모습이 보이는 쪽을 으뜸으로 쳤다.⁶⁴⁾ 따라서 부뚜막 건너편에 구유를 거는 함경도와 강원도의 외양간을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은 가택신앙적인 의미뿐만이 아닌 소와 말의 추위를 덜어주는 보호의 역할까지를 고려한 배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축사에 대한 신성성은 Masai족의 축사 배치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Masai족은 그림⁶⁵⁾과 같이 축사를 주거내 중심부에 위치시킴으로써, 그들 문화의 가장 기본적인 형상을 이루는 중심역할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서

64) 김광언, 한국의 집지킴이, 다락방, 2000, pp.191-192

65) Amos Rapoport, 주거형태와 문화, 이규목 역, 열화당, 1985, p.85

집승은 경제적 가치 이상의 종교적이며 신비적인 상징을 지닌 것이며 더불어 집승이 거주하는 축사 역시 중요한 공간요소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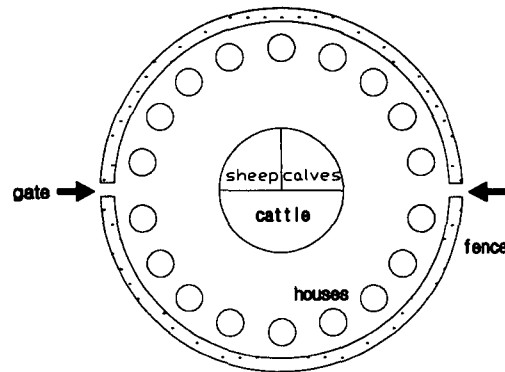


그림 11. Masai족의 축사 배치

이처럼 한국전통주거에서의 축사는 인간이 거주하는 안방, 부엌 등과 더불어 방향성과 신성성이 부여된 공간인 것이다.

2) 곳간 - 도장지신

도장 또는 고방이라고도 불리며 주로 곡물을 저장하는 공간이다. 선사시대의 움집에서 화덕자리 근처에 자리하였던 저장공이 청동기 시대에 이르러 점차 없어지고, 별도의 저장시설이 나타나는 것은 주거공간으로부터 저장시설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三國志』魏志 東夷傳의 고구려에 대한 기록 중에 「큰 창고 없이 집집마다 작은 창고를 두었는데, 이를 桴京이라 하였다.」라는 내용이 있어 곳간의 분리, 독립을 나타내주고 있다.

농업사회에서 곡물이란 식량일 뿐만 아니라 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장하는 곳간 또한 중요한 장소로서 인식되었다. 이러한 사유는 지속적인 생성과 팽창을 주관하는 재복신으로의 기능을 지닌 도장지신 또는 노적장군, 고방지신이라 불리는 가신을 좌정케 했다. 따라서 곳간 역시 다른 공간과 마찬가지로 위치와 의미에 있어 신앙적 의미와 중요성이 부여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집의 좌향이 남향일

경우 곡간은 남향에서 서향사이에 배치되었다. 또한 『林園經濟志』에는 창고의 위치와 방위에 대하여 「곳간은 마당에 면해야 하며 물이 창고문을 향해 들어오면 좋다. 평상시 거할 적에 창문을 열면 5~6장의 거리에 처해 앉아서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곳간 역시 신성한 공간, 방향성을 가진 공간으로 형성되었던 것이다.

3) 방앗간 - 방아지신

먹을 것과 관련된 다른 공간과 마찬가지로 방앗간 또한 식량을 다루는 장소로서 중요하게 여겨졌으며 방아지신의 좌정공간이다. 방아지신을 통하여 풍부한 식량의 지속적인 공급을 기원하는 내용은 지신밟기 노래⁶⁶⁾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지신밟기>

여루여루 방아야 이방아 누방아고
강태공이 조작방아 덩덩쿵 짝어라
날 천석이라 짝어라 팔만석이나 짝어라
여루여루이 지신아 자손만대로 짝어라
수수만대로 짝어라 여루여루야 지신아

이렇게 식량을 공급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되었기에 풍수로부터 좌향을 보아야 했으며, 좋은 날을 받아 설치해야 하는 공간이었다. 또한 방아를 설치함에 있어서도 집 주위의 지형을 보아 방아의 위치가 결정되었는데, 『고려사』⁶⁷⁾에 의하면 고려의 권신이었던 최충헌의 옆집에 궁중에 약을 조달하는 관서가 있었는데, 밤낮으로 약을 짙는 소리가 자신의 집으로 통하는 지맥을 끊는다고 하여 그 관서를 다른 곳으로 이전시켰다고 한다. 즉, 방아질은 지동을 일으키고 이 지

66) 강영환, 집의 사회사, 웅진출판, 1992, p.229

67) 이규태, 우리의 집 이야기, 기린원, 1991, p.50-51

동은 지맥을 끊어 버리기 때문에 주변에 방앗간이 있으면 가세가 일지 못한다고 여겼던 것이다.

한편, 『山林經濟』의 卜居條에서는 방아의 위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마땅히 본명(本命)⁶⁸⁾의 생왕방(生旺方)과 인방(寅方), 간방(艮方), 해방(亥方)이어야 한다. 방아머리가 있는 곳에 집이 있으면 집이 반드시 불안하다. 방아머리는 안으로 거슬러서는 안되며 밖으로 향해서도 안되고 가로로 곧게 설치해야만 길하다.」

이처럼 방앗간은 방아시설과 더불어 방아지신이 있다고 믿어져 방앗간의 좌향은 물론 방아머리를 두는 방향 역시 오래 전부터 중요시되었던 것이다.

4) 대문 - 수문신

대문은 세속적 공간인 외부세계에서 신성한 공간인 내부세계로 들어오는 열려진 개구부로서 외부의 물리적 위협에 대한 방어적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잡귀나 병 등과 같은 미신적 위협을 차단시켜주는 심리적 보호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조상들은 문을 잘 단속하여 가정의 평화를 지키려 하였고 잡귀나 악운이 들이닥칠 때 수문신이 이를 막아주리라고 여겼다. 이러한 수문신은 가정뿐만 아니라 큰 절이나 마을 입구에 세우기도 하였다. 절 문 좌우 양쪽의 큰 눈을 부릅뜬 금강력사(金剛力士)상이나 마을 어귀나 고개 마루턱에 버티고 선 장승이 그것이다.

이처럼 한국전통주거의 대문에는 문을 지켜주는 가신인 수문신이 존재한다고 믿어 엄나무 또는 범뼈, 말뼈와 같이 잡귀를 쫓는 능력이 있는 동물의 뼈를 걸어 두거나 붉은 물감을 사용한 그림이나 글귀, 부적을 신체로써 모셨다. 신라시대에 처용의 모습을 수문신으로 문에 그려 붙였다는 사실을 미루어 그 유래가 오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68) 출생한 해의 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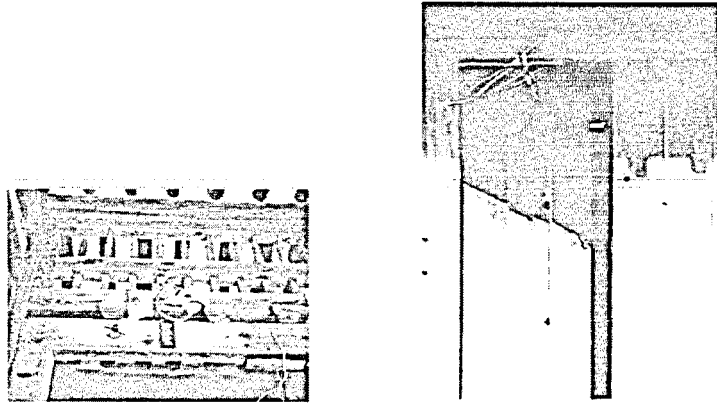


그림 12. 守門神]의 神體

하지만 수문신은 제주도와 서울을 제외한 농촌에서는 대문의 개념이 약할 뿐 아니라 대문이 따로 없는 집도 많기 때문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 가신이라 할 수 있다. 그에 반해, 제주도에서는 중요시되는 가신 중 하나로 문전신이라고도 불리워진다. 제주도의 문전신은 다른 지방의 문전신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집의 상방 앞쪽 부분을 차지하는 문신과 뒤쪽 문을 차지하는 문신이 있는데 전자를 ‘앞문전’, 또는 ‘일문전’, 후자를 ‘뒷문전’이라고 한다. 이중 중요시되고 있는 것은 전자로서, 「문전본풀이」라는 제차로 모셔진다.

이와같이 한국전통주거에서 대문은 물리적 차원에서의 방어기능 뿐만 아니라 심리적 보호 차원의 시설물로써 인식되었다.

홍만선의 『山林經濟』에서 문 세우는 날을 따로 잡는 일, 좌향을 보는 일, 그리고 문의 높이와 크기를 정하는 법을 상세히 적은 것도 이 때문이다. 즉 수문신으로 인해 생겨난 신성성은 대문에 장소적 질서를 부여한 것이다.

· 대문의 방위 - 주거의 방위 중에서 가장 중요시했으며⁶⁹⁾ 예로부터 대문의 방위로는 동문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즉 동문의 방향은 빛이 나타나는 원점으로서 생명의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만물을 소생시키는 방향으로 상징되어 고려되었던 것이라 생각된다.

69) 民宅三要：夫日要者何 門主灶是也 門乃間之路

· 대문의 크기 - 집에 비해서 큰 것은 흉하며 적은 것이 길하다⁷⁰⁾하여 집과 대문의 조화를 꾀하였다.

· 대문의 위치 - 대문 입구에 물웅덩이나 사당이 있으면 좋지 않다고 했으며 변소 또는 부엌의 문과 마주 보이면 흉하다고 했다.⁷¹⁾ 또한 곧은 길이나 수로가 직접 문에 다달으면 나쁘다고 하여 금기시 하였다.⁷²⁾

이처럼 대문은 안과 밖의 세계를 교류하는 통로로서 수문신과 함께 잡귀를 물리치고 복을 나가지 못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전통주거공간에 있어서 중요한 장소이자 시설물인 것이다.

5) 장독대 - 철룽신

장은 한국인의 식생활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식료품으로 대를 이어가며 먹는 것이기에 잘 살펴야만 했다. 따라서 장독대는 주거내 주요공간임과 동시에 가내의 평안과 무병을 담당하는 철룽신이 있다고 믿어져 신성시하였다.⁷³⁾

철룽신은 전라도 지방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 가신으로 철령, 철룽단지, 철룽할마이 등으로 불리워지며 간장과 된장, 고추장을 보살펴줄 뿐만 아니라 가내의 평안과 무병을 목적으로 한다.

원래 철룽이라는 말은 집뒤의 터신 또는 집 뒤의 터를 뜻하는 것으로 장독대 혹은 장독대 근처에 위치한다. 철룽신의 신체는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집 뒤 자체를 철룽이라고 생각하여 뒤곁에 쌀이나 한지를 담은 단지를 땅에 묻고 그 위에 짚 주저리를 세우는 형태이며, 두 번째는 장독대에 모시는 경우로 특별한 신체가 없이 물을 담은 중발을 장독대 위에 올려놓는 형태이다.

이처럼 장독대에는 철룽신이 존재한다고 믿음으로써 신성공간으로서의 특성과

70) 黃帝宅經의 五虛五實의 내용 중 하나

71) 홍만선, 山林經濟, p.14

72) 홍만선, 앞책, pp.14-15

73) 장주근, 한국민속대관, p.105-108

의미를 한층 심화시켰던 것이다.

6) 우물 - 용왕신

우물은 인간에게 필수적인 물을 공급해 주는 장소로서 물을 마르지 않게 하는 용왕신이 있다고 믿어져 정월 14일에는 용왕신에게 제례를 행하였다.⁷⁴⁾ 이는 좋은 물이 솟아나야 그것을 먹은 사람들이 무병하기에 다른 주거내 공간과 더불어 주요한 시설물로 취급하기 위함이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공간의 중요성과 신성성은 거주자들에게 깊은 의미와 상징 그리고 방향성을 부여해 주었다.

· 우물의 위치 - 건물의 前後方向은 반드시 피해야 하고 우물과 부엌은 서로 마주보지 않아야 한다.⁷⁵⁾

· 우물물의 향 - 남동쪽으로 내보내야 좋다고 했으며 우물물이 대문 앞으로 흘러 나가면 복이 나간다고 하여 금기시하였다. 또한 예로부터 우물물의 향은 本山の 生旺한 방향에 두어야 길한 것으로 여겼으며 本山이 金體일 경우에는 서쪽에, 木體일 경우에는 동쪽에 위치시켰다.⁷⁶⁾ 민간신앙에서는 우물은 巳亥方이라 하여 南東쪽을 으뜸으로 여겼으며 동향 및 北西쪽의 우물도 一體災厄이 면제받는 吉방향으로 간주했다.⁷⁷⁾ 특히 정남향의 우물은 가장 不吉한 우물로 터부시되었는데 그 이유는 南쪽은 火이므로 相剋火가 되기 때문이다.

· 우물 파는 시기 - 陽遁(12.22-6.22) 동안에 파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겨울 土旺期(1.17-2.3)와 봄철 土旺期(4.17-5.7)사이에는 우물파는 것을 제한하였다.⁷⁸⁾

74) 장주근, 앞책, p.117

75) 박시익, 풍수지리설과 건축계획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1978, p.135

76) 박시익, 앞논문, p.135

77) 전태수, 가상학 입문, 명문당, 1978, p.138

78) 전태수, 앞책, p.149

또한 우물고사를 지내기 전에는 반드시 우물에서 오물을 제거하고 지붕을 씌우거나 금줄을 쳐 당분간 물을 먹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는 위생상의 청결함까지를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볼 때 우물은 신앙적 의미와 상징, 그리고 방향을 가지고 있었으며 주거공간에 있어서 聖의 공간 중 하나였던 것이다.

6. 家神을 통해 본 韓國傳統住居空間의 構成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전통주거내에 좌정하는 가신은 인격화되었으며 따라서 이러한 인격신이 인간을 상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신들의 관계는 거주자의 사회적인 상황을 은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며, 그러한 신들의 관계가 한국전통주거공간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까지 확대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가택신앙에서 나타나는 가신과 한국전통주거공간과의 상징적 연관성 속에서 한국전통주거의 평면을 크게 위계와 조직구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6-1. 공간의 위계구성

가신은 가족성원과 그들이 거주하는 공간의 상징적인 질서체계가 투영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의 질서체계란 첫째, 부권중심의 가족주의 제도 속에서 가족의 생존과 생활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가장으로서 父의 역할에 따른 지위, 둘째, 전통사회에서 강조되는 가계의 계승과 가문의 존속 및 조상숭배의 주체자로서 子의 역할에 따른 지위, 셋째, 이들을 내조하고 모성애로 보살피 주며, 까다로운 윤리규정을 마다할 수 없는 처지에서 지켜 나가며 가정 내부의 일에 충실하는 여성의 역할에 따른 지위가 신격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戶主를 대신하는 성주를 최고신으로 봉안하였으며 다음이 자녀의 출산과 성장을 지켜주는 삼신, 그리고 그 다음이 火神으로서 안주인의 생활공간인 부엌에 봉안된 조왕신 순이다. 또한 조상신도 중요시 여겨져 최고신으로 모시는 경우도 있었다.⁷⁹⁾

이처럼 성주신, 삼신, 조왕신, 조상신 등 주거내에 위치한 가신들은 신성, 정결하며 가족과 집을 수호하는 善神이고, 망령, 잡귀 등 집밖의 신들은 부정하고 재

79) 김영자, 안동문화 8, 1987, p.11

양을 주는 惡神들이다.

집안에 모셔지는 선신들의 출현빈도를 보면 지방마다 차이가 있긴 하나 대체적으로 성주신, 삼신, 조왕신 등이 비교적 많이 섬겨지는데 이는 결국 집의 중심으로서 대청, 안방, 부엌 등이 주거공간 중에서 비중있는 공간으로 인식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즉 생활공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짐에 따라서 그 관할신도 중요시되었으며 신의 신적 위치가 바로 공간의 중요성과 위계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신들의 존재는 생활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 神間의 위계질서는 주거의 공간관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신의 위계⁸⁰⁾는 모든 신들을 다 청해 들어서 기원하는 제주도의 綜合祭인 큰 굿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 굿에서는 신들을 청해들이는 순서를 ‘젯드리’라고 하는데 ‘젯드리’란 ‘제(祭)’와 ‘드리(橋)’의 복합명사이다. 드리는 ‘嬌’의 뜻 외에 ‘순서, 순위’ 등의 뜻이 있어 ‘젯드리’는 祭의 순서라는 의미가 되고 신들의 위계 순서가 되기도 한다. ‘젯드리’는 최고의 신인 ‘옥황상제’부터 최하위 신인 ‘눌굽지신’까지의 신명을 나열한 것이다.⁸¹⁾

젯 드리			
1	옥황상제(하늘 차지신)	14	명궁(명부사자)
2	지부사천대왕(땅 차지신)	15	세경(農畜神)
3	산신대왕, 산신백궁(산신)	16	군웅, 일월조상(一家族수호신)
4	다섯용궁(바다 차지용신)	17	성주(가옥신)
5	서산대사, 옥관대사(절간 차지신)	18	문전(문신)
6	삼승할망(産育神)	19	본향(부락수호신)
7	홍진국대별상 서신국마누라(마마신)	20	영혼, 혼백, 마을제사영
8	날궁전, 달궁전(日月神)	21	칠성(부와 곡물의 신)
9	초공(巫俗神)	22	조왕(부엌의 신)
10	이공(서천꽃밭 주화관장신)	23	오방토신(방위 및 집터의 신)
11	삼공(前生神)	24	주목지신, 정살지신(출입로신)
12	시왕(저승과 생명 차지신)	25	울담, 내담지신(올타리신)
13	차사(시왕의 사자)	26	눌굽지신(날가리의 신)

표 8. 제주도 무속의 젯드리

80) 가신간의 위계관계를 묘사한 가신신화는 찾을 수가 없었으며 다만 제주도 종합제의 젯드리에서 신들의 위계를 살펴볼 수가 있었다.

81) 정영철, 제주도 전통민가의 공간적 특징 및 의미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논문, 1991

말하자면 가신간에는 上·中·下라는 위계구조가 있어 이 신들의 존재 및 위계가 주거공간의 위계구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5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상위신으로는 천신계의 성주신이 있으며, 중위신으로는 인신계의 삼신과 조왕신, 조상신 등이, 하위신으로는 우마신, 도장지신, 수문신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가신간의 위계질서와 한국전통주거의 위계적 공간구성과의 상징적 관계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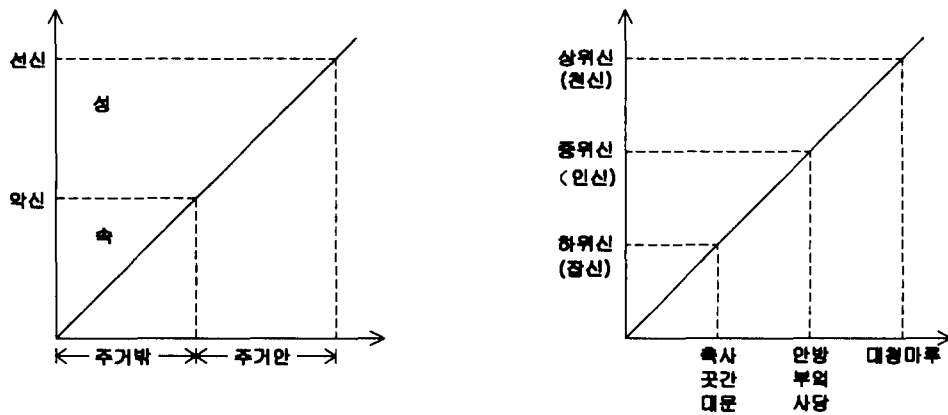


그림 13. 신의 위계와 주거공간과의 관계

6-2. 공간의 조직구성

다음으로는 제주도의 『문전본풀이』와 경기도 화성지역의 『성주굿』을 통해 가신의 위치와 주거공간조직과의 상징적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문전본풀이』를 통해 한국전통주거공간의 조직구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가택신앙은 비록 지역차가 있기는 하지만 그중 가신신화가 가장 풍부하고 가택신앙의 원모습을 잘 보여주는 곳은 제주도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의 가신신화에 해당하는 『문전본풀이』의 내용은 육지의 성주신화와는 상당히 다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이유에서인지 제주도의 주거유형 역시 육지의 집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문전’은 제주도 민가의 상방 앞쪽 문신을 일컫는 말로, 제일 상위의 문신이라 하는 뜻으로 ‘일문전’이라고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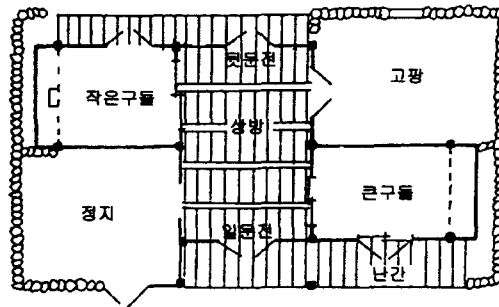


그림 14. 일문전의 위치

그러므로 『문전본풀이』란 바로 문신신화라는 뜻이 되는데, 이 신화는 문신뿐 아니라, 부엌신인 조왕, 올래의 정주목신인 주목·정살지신, 변소신인 칙도부인, 집 울타리안을 오방(五方)에서 지키는 오방토신 등, 이른바 가신들의 내력을 설명하는 본풀이다. 이들 신 가운데 문전신이 제일 중요시되고 있으므로 『문전본풀이』라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다음은 『문전본풀이』⁸²⁾의 내용이다.

<문전본풀이>

남선비와 여산부인이 부부가 되어 아들 7형제를 낳고 가난하게 산다. 남선비는 부인의 권유에 따라 배를 타고 곡식장사를 떠났는데 오동고을에 닿았다. 이 고을의 간악한 여인 귀일의 딸은 곧 남선비를 유혹하여 돈을 빼앗으려 했다. 남선비는 이 여인의 흘림에 빠져 돈을 빼앗기고 눈까지 멀어졌다. 할 수 없이 귀일의 딸을 첩으로 삼아 겨죽을 먹으며 연명해 간다. 기다리다 지친 여산부인은 배를 타고 남편을 찾아 오동고을에 닿았다. 겨우 남편을 찾고 보니, 첩이 나타나 아양을 떨며 목욕하러 가자고 유인하여 물에 빠뜨려 죽여 버린다. 그리고서는 첩은 본부인인 척 가장하여 남선비와 같이 고향으로 돌아온다. 부모를 맞은 7형제 중 똑똑한 막내아들이 친어머니가 아님을 알아차리고 형들을 깨우친다. 첩은 이 눈치를 채고 장애물인 아들들을 죽일 계략을 꾸민다. 배가 아픈 체하며 뒹굴며 남편에게 점을 쳐 오게 하고, 아들 7형제의 간을 내어 먹어야 낫겠다는 점괘를 꾸며낸 것이다. 7형제의 간을 내어 먹고, 한 배에 셋씩 세 번을 낳아 아들 9형제를 낳겠다는 말이 그럴싸하여 남편은 칼을 간다. 이를 안 막내아들이 형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 멧돼지 간 여섯을 내다가 형들 간이라고 계모에게 드린다. 먹는 체하며 자리 밑으로 숨긴 것을 건어치워 계략을 천하에 폭로한다. 겁이 난 첩은 변소로 도망가 목매어 죽어 변소신 칙도부인이 되고, 면목없는 아버지는 울래로 내닫다가 정낭에 걸려 죽어 정주목신이 된다. 7형제는 물에 빠져 죽은 어머니를 살려내어 부엌의 신인 조왕으로 앉히고, 아들 중 위로 5형제는 오방토신이 되고, 여섯째 아들은 뒷문전(상방의 뒷문신)이 되고, 똑똑하고 역력한 막내아들은 일문전(상방의 앞쪽 문신)이 되었다.

위의 『문전본풀이』의 내용을 보면 네개의 대립항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① 남선비 ↔ 부 인 : 남선비가 집을 나가서 첩을 들임
- ② 부 인 ↔ 첩 : 첩이 부인을 죽임

82) 현웅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pp.267-268

③ 첩 ↔ 아들형제 : 아들형제의 지략으로 첩을 죽임

④ 남선비 ↔ 막내아들 : 남선비의 비겁하고 어리석음과 막내아들의 용맹하고 지혜로움

이 중 가장 두드러진 대립항은 부인과 첩의 대립이라 할 수 있다.

위의 『문전본풀이』에서 나타나는 각 가신들의 위치와 공간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장인 남선비(정주목신)의 위치는 대문, 부인(조왕신)은 부엌, 첩(칙도부인)은 변소, 아들들은 집안의 문과 마당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가신들과 그 위치를 비교하여보면 다음 표와 같다.

주 거	안	부인	조왕신	부엌	善
		막내아들	일문전신	일문전	
	안과 밖	오형제	오방토신	마당	惡
		여섯째아들	뒷문전신	뒷문전	
	밖	남선비	정주목신	정낭(대문)	
		첩	칙도부인	변소	

표 9. 『문전본풀이』에서 나타나는 가신들의 공간적 위치

이와 같은 『문전본풀이』에 등장하는 가신들의 위치 중 가장 특이한 것은 남선비, 즉 가장의 위치이다. 다시말해 호주인 가장이 살림채 내 중심공간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대문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인격화된 가신과 주거와의 상징적 연관성 속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신신화의 내용이 공간적 속성을 은유적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주도의 집은 한 담장안에 한채의 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성장하고 분가함에 따라 보통 두채, 많게는 네채까지 지어지게 된다. 따라서 집안을 수호하는 가장인 남선비가 집안에 좌정하는 것보다 입구를 지키는 것이 주거공간 전체를 지키는데 효과적이다.

또한 변소는 가족의 축사와 관련된 기능적인 이유로 담장안에 지어지게 되는데, 변소의 불결함을 피하기 위해 부엌을 변소와 반대편에 놓는 속신이 있다. 그것은 첩(변소)의 불결함은 남선비(대문)가 막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마당을 사이에 두고 반대편에 배열이 되는 것이며, 결국 첩과 부인과 가장을 화해시키고 연결하여 줄 수 있는 것은 자식들(마당)이라는 것은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을 구조도식으로 표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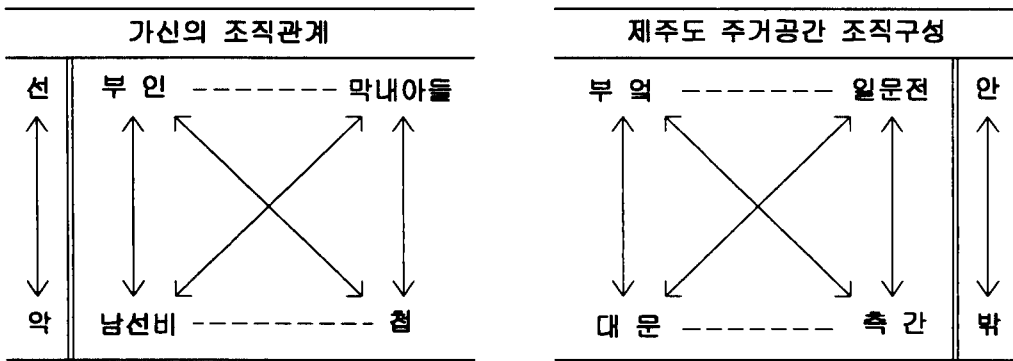


그림 15. 가신들의 위치와 주거공간 조직구성과의 연관성

여기에서 (--)로 표시된 것은 우호관계이며, (↔)로 표시된 것은 대립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강한 대립을 이루는 것은 대각선 방향의 부인과 첩의 대립적인 관계이며, 또한 그것은 막내아들과 남선비의 강한 대립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를 공간적인 관계로 전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제주도의 민가는 오래된 정당을 내리어 들어서면 마당이 널찍하게 있고, 마당을 앞에 놓아 건물 본체가 세워져 있으며, 적당한 공간에 부속 건조물이 배치되어 있다. 건물이 수와 크기에 따라 그 유형은 여러 가지가 되지만, 그 중에도 가장 많이 보이는 삼칸(三間)집의 배치를 보면 다음 그림⁸³⁾과 같다.

83) 주남철, 한국의 전통민가, 아르케, 1999, p.5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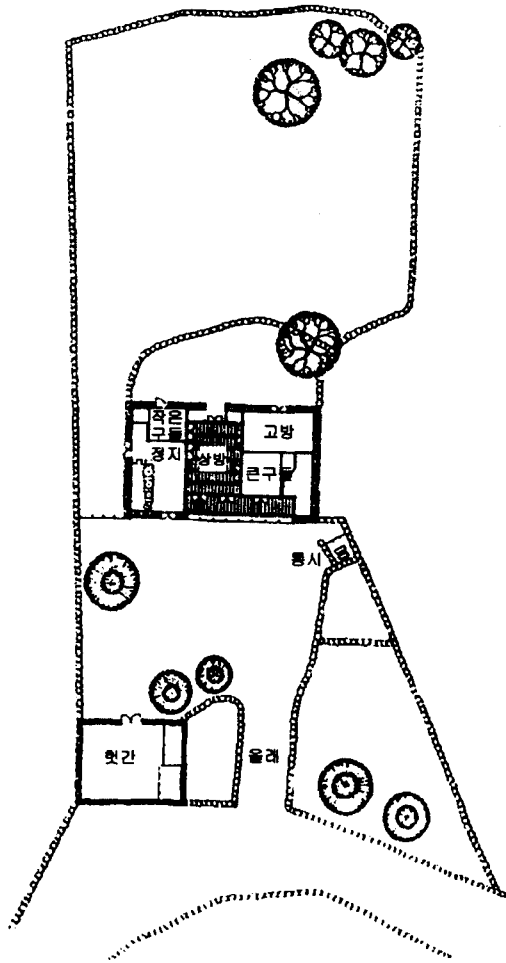


그림 16. 제주도 성읍마을 이영숙가옥

그림의 큰구들과 작은 구들은 온돌로서 침실이고, 상방은 마루방으로 가족들의 거실과 같은 방이며 고방은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이다. 정지는 부엌이며 쇠막은 외양간, 통시는 변소, 늘왔은 낮가리를 위해 축조된 터를 말한다. 이중 큰구들과 상방은 남자 곧 가장의 관리공간이고, 작은구들, 고방, 정지는 주부의 관리공간이다.

이와 같은 건조물 배치에서 건물 본체의 공간구성은 다소 변형될 수 있지만, 부엌과 변소의 위치가 반대의 위치에 놓이는 것과 대문에서 마당이 직접 맞닿지

얇고 긴 올래(제주도 민가에서 보이는 개인집으로 들어오는 골목)가 만들어지는 것은 제주도 민가에서 중요한 원칙처럼 되어 있다. 또한 부엌과 일문전은 안쪽공간을 상징하며 善神의 위치이고, 대문과 변소는 바깥쪽 위치이면서 惡神으로 나타남으로써 주거공간에서의 안/밖의 관계, 더불어 聖/俗의 관계로 이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경기도 화성지역의 『성주굿』⁸⁴⁾무가⁸⁵⁾에는 조왕신과 성주신의 대립관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무가에서는 조왕신이 할아버지 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부부로 나타나고 있다. 황우양씨가 성주신이 되는 내력이 서술되어 있는 이 무속 신화에는 문전본풀이와는 달리 조왕신이나 측간신이 가족으로 등장하지는 않으며 다만 천하궁의 차사가 황우양씨를 잡아가려 하자 조왕할아버지가 이에 협조함으로써 이들의 대립관계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성주굿>

…천하궁의 차사가 황우양씨 집에 들어서자 업왕이 길을 막아 황우양씨를 잡아갈 도리가 없어 찢찢맨다. 이 때 조왕할아버지가 차사에게 말한다. “내일 아침에 황우양씨가 갑옷과 투구를 벗어놓고 어머니를 마중나갈 때 재주껏 잡아가도록 해라” 이에 황우양씨가 항의를 하자 조왕할아버지는 그럴만한 연유가 있음을 말한다. “황우양씨 내외가 평소 나를 대하는 태도가 꽤 씹해서 그러느니라. 황우양씨는 나갔다가 돌아오면 긴 목버선을 벗어, 나 있는대로 팽개치니 그도 꽤 씹하거니와, 그의 부인은 식칼을 갈아 부뚜막에 얹어놓으니 그것 역시 꽤 씹하지 않느냐”…

위의 『성주굿』의 내용을 보면 성주신과 조왕신과의 대립항이 나타나고 있음

84) 김태곤, 한국의 무속신화, 집문당, 1985, pp.123-134

85) Yahoo 국어사전-무가, 신화, 금성출판사, 1997

· 무가 - 무당이 무속 의례에서 신을 향해 읊는 노래

· 신화 - 우주의 기원, 신이나 영웅의 사적(事績), 민족의 태곳적 역사 등, 고대인의 사유나 표상이 반영된 신성한 이야기(단군 ~ / 그리스 ~ / 건국 ~)

을 알 수 있다.

- 황우양씨 ↔ 조왕할아버지 : 천하공의 차사가 황우양씨를 잡아가는데 조왕할아버지가 협조함

이는 신화의 내용이 공간적 속성을 은유적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미루어 볼 때 황우양씨와 조왕할아버지의 대립관계는 마루와 부엌의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강영환의 '주거 평면형태와 공간구성'⁸⁶⁾ 구분에 의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間 배열형태	공간구성	
	서부지역	동부지역
홀집		
반겹집		
겹집		

표 10. 평면형태와 공간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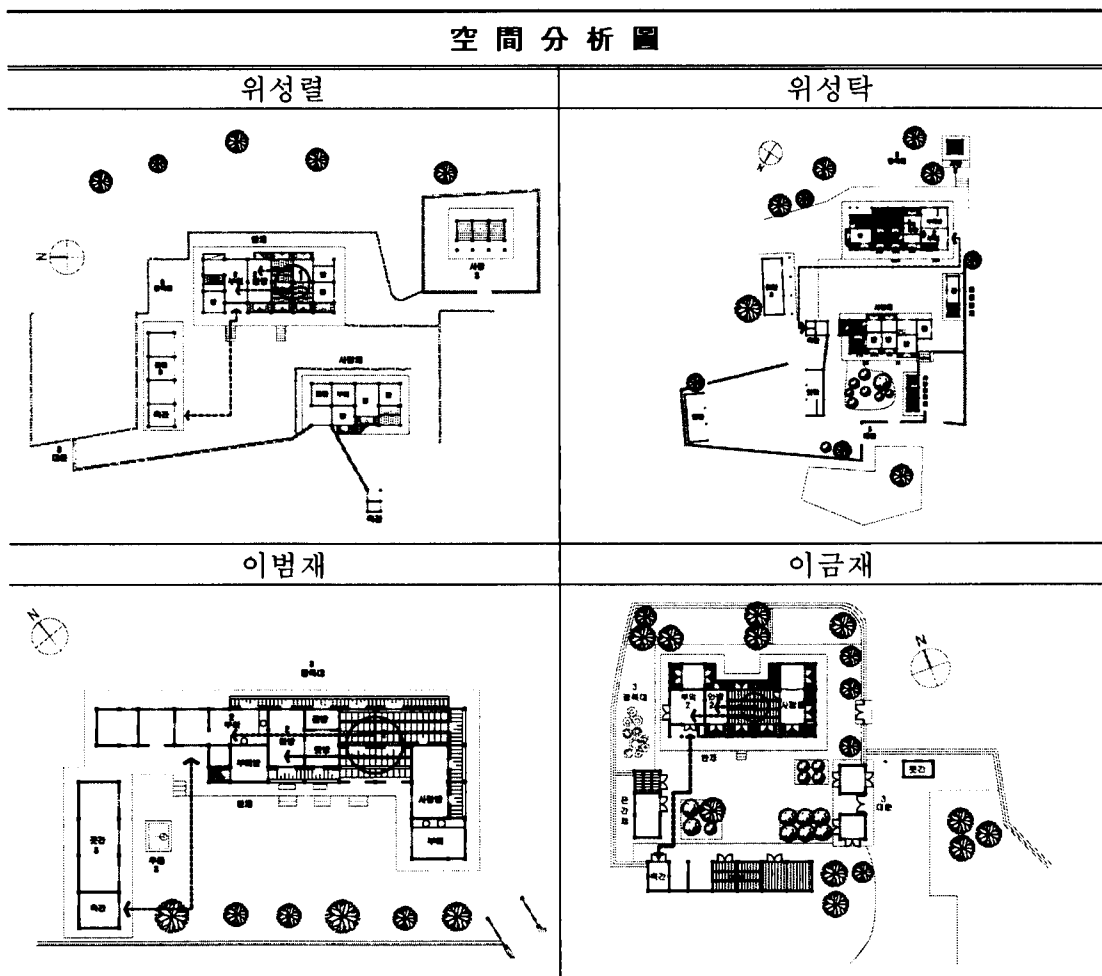
위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마루와 부엌은 지역과 평면형태에 관계없이 대체적으로 맞붙어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온돌이 아닌 마루가 깔린 대청마루와 불을 사용하는 부엌의 공간적 성질로 인해 화재예방의 관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86) 강영환, 地方大木들의 知識體系 分析을 통한 傳統住居文化의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8권2호 통권 40호, 1992. 2, p.97

이렇게 주거공간구조와 가신에 의한 사람의 은유가 일치하는 것은 신화적인 내용에 맞춰서 일부러 집을 그렇게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신들의 관계가 거주자의 인문적 상황과 공간적인 상황에 빚대어져서 주거공간에 설정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으로 이해하자면 가신신화의 내용속에는 신화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인문적인 관점과 공간에 대한 관점들이 상징적으로 표현되어졌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6-3. 사례분석

전라남도에 위치한 전통주거 중 건립연대가 비교적 오래된 주거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p>공간의 위계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통주거는 중심에서 주변으로, 즉 주건물에서 부속건물로, 내부에서 외부로의 방향성을 갖음 · 내부와 외부가 대립되는 구조인 전통주거는 그 내부성이 강조되는 것이며 그 공간대립성은 실의 중요성에 따라 배치되는 신의 위계에 의해서도 나타나고 있음
<p>공간의 조직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청마루 ↔ 부엌, 부엌 ↔ 측간 · 안채 - 북서쪽, 사랑채 - 남동쪽 (= 男左女右) · 안방 - 대청마루의 왼쪽

표 12. 한국전통주거의 공간구성

이러한 사항들이 모든 한국전통주거에 정확히 적용되는 요소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람들의 정신 속에 존재하는 이상적 배치로서 이러한 向과 方位, 空間構成 개념은 어느정도 주거를 배경으로 형성된 가택신앙과 관련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7. 결론

民間信仰은 현실과 무관한 허구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내고 전승하는 사람들의 세계관이 반영된 은유적 체계라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 있어 民間信仰의 형태는 사라져가는 문화형태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역사속에서 오랜 전승력을 가지고 삶을 같이하여온 것이었다.

특히 民間信仰의 여러 유형 중 주거를 배경으로 형성된 家宅信仰은 주거공간에 대한 거주자의 생각과 애착, 가족관 등이 반영되어 있어서 한국전통주거가 갖는 의미와 공간의 조직구성원리를 엿볼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家宅信仰에서 등장하는 가신과 신화 또는 무가를 통하여 한국전통주거공간의 의미와 구성원리를 이해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었으며 이상의 고찰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한국전통주거에 나타나는 가신은 天神, 人神, 雜神이라는 성격상 크게 上位神, 中位神, 下位神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上位神에 속하는 城主神과 中位神에 속하는 삼신, 조왕신, 조상신, 측간신 그리고 하위신에 속하는 우마신, 도장지신, 수문신, 철룡신, 용왕신으로 나눌 수 있다.

2) 한국전통주거의 거의 모든 공간에는 각각의 기능을 지닌 가신이 좌정되어 있다. 이는 한국전통주거공간이 세속된 인간세계에 건설된 성스러운 공간으로써 주거외부의 俗됨으로부터 주거내부공간의 聖스러움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한국전통주거를 가택신앙의 신앙적 체계로 보면, 건물로서의 주거건축이 가신들이라는 인격체로 의인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건물로서의 주거'와 '가신의 거처'가 동일시되는 동시에, 주거는 가신이라는 신격체들로 신성시되어 왔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국전통주거는 기능적 요구에 의한 물리적 공간일 뿐 아니라 신의 개념과 함께 신성공간을 형성하였으며, 이러한 종교적인 상징과 의미를 통하여 재앙을 방지하고 풍요로운 삶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출이라 하겠다.

3) 신·인간·공간의 상징적 관련성 속에서 한국전통주거공간의 구성원리를 이해하기 위하여 가신과 주거공간과의 관계를 고찰해 본 결과 신들의 관계는 신앙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생활상을 반영하며, 신의 공간적 위치는 실제의 공간적 구성원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1) 주거내에 존재하는 가신의 위계는 주거공간의 중요성과 위계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신들의 존재는 그곳에 거주하는 거주자와 그들의 생활을 반영하며 가신들간의 위계질서는 곧 주거공간의 위계적 구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3-2) 제주도의 문전본풀이와 경기도 화성의 성주굿 무가를 분석해 보면 제주도 민가의 공간구성 원리에는 부엌과 변소의 위치를 반대편에 놓으려고 하였던 점과 마당과 대문의 위치를 직접 맞닿게 하지 않고 긴 울대를 통하여 연결하려 했던 생각들이 신화에 반영되어 있다. 또한 경기도 화성지역의 성주굿 무가에서는 조왕신과 성주신의 대립관계를 통한 대청마루와 부엌의 공간관계가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볼 때 무속신화에서 나타나는 신들의 관계는 사람들의 생활상을 반영하는 것이며, 또한 주거공간에서의 공간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오랜 기간동안 거주자의 생활과 주거공간 속에서 함께 한 가택신앙의 내용에는 거주자의 생활관이 배어 있으며 따라서 가택신앙의 분석을 통한 한국전통주거의 의미와 구성에 관한 이해는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온 공간구성원리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인문사회에 대한 생각을 바탕으로 한 해석은 다양하게 접근되어져야 할 한국전통주거의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직접적인 관찰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신앙형태를 통해 주거공간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당부분 연역적 추론에 의존하였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으며 학문적 교차

연구가 갖는 연구깊이의 한계를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가택신앙의 형태 중 건축의례부분은 민속적인 성향이 강한 것으로 보고서 한국전통주거 내에 존재하는 가신만을 통해 한국전통주거를 고찰하였기에 가택신앙의 일부분에 국한되었다는 점과 전해오는 신화와 무가가 특정지역에 소수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통한 주거공간의 해석을 일반화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점이 본 연구의 한계이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1. 강영환, 집의 사회사, 웅진출판, 1992.
2. 고대민족문화연구소, 한국민속대계1, 1980.
3. 김광언, 한국의 주거민속지, 민음사, 1988.
4. 김광언, 한국의 집지킴이, 다락방, 2000.
5. 김명자, 한국민속사입문, 지식산업사, 1996.
6. 김서경, 집과 운세, 현암사, 1989.
7. 김태곤, 한국무속연구, 집문당, 1982.
8. 김태곤, 한국민간신앙연구, 집문당, 1983.
9. 徐有槩, 林園經濟志, 相宅志 卷第一, 보경문화사, 1983.
10. 이규태, 우리의 집 이야기, 기린원, 1991.
11. 장기인, 한국건축대계5-목조, 보성각, 1998.
12. 전태수, 가상학 입문, 명문당, 1978.
13. 丁若鏞, 茶山論叢, 李翼成 譯, 乙酉文化史, 1990.
14. 주남철, 한국의 전통민가, 아르케, 1999.
15. 지춘상 외, 남도민속학 개설, 태학사, 1998.
16. 진성기, 남국의 무가, 제주민속문화연구소, 1968.
17. 현용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18. C. N. Schultz, The Concept of Dwelling, 이재훈 역, 태림문화사, 1991.
19. C. N. Schultz, 실존·공간·건축, 김광현 역, 태림문화사, 1985.
20. M. Eliade, 성과 속, 이동하 역, 학민사, 1991.

<학위논문>

1. 金秉基, 韓國傳統住居建築에 表出된 民間信仰의 影響에 關한 研究, 중앙대대학원 석사논문, 1987.

2. 南虎鉉, 韓國傳統住居의 神性空間에 關한 研究, 홍익대대학원 석사논문, 1987.
3. 박시익, 풍수지리설과 건축계획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대학원 석사논문, 1978.
4. 朴在夏, 韓國 民間信仰 象徵體系의 場所化에 關한 研究-河回마을을 中心으로, 서울대대학원 석사논문, 1988.
5. 서영대, 韓國古代 神觀念의 社會的 意味, 서울대대학원 박사논문, 1991.
6. 李貞任, 전통주거건축 환경의 장소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대학원 석사논문, 1987.
7. 鄭英喆, 濟州道 傳統民家の 空間的 特徵 및 意味에 關한 研究, 한양대대학원 박사논문, 1991.
8. 朱英愛, 朝鮮朝 上流住宅의 살림空間에 관한 生活文化的 考察, 성신여대대학원 박사논문, 1992.
9. 崔炳佑, 韓國傳統建築의 住居空間에 關한 研究, 영남대대학원 석사논문, 1983.
- 현두용, 한국건축의 양택론에 관한 연구, 홍익대대학원 석사논문, 1977.

<참지>

1. 김광언, 주민생활과 민속, 공간, 1985.
2. 김란기, 마루의 공간적 의미, 건축과 환경, 87.1.
3. 배도식, 한국민속학18-한국의 이사풍속, 민속학회, 1985.
4. 손세관, 세계의 집- 토루, 현대산업개발, 2000.9.
5. 최인학, 제의와 여성, 한일비교민속심포지엄, 1983.
6. National Folk Museum, 민속학연구, 제6호, 1999.

Analysis of Meanings of Korean Traditional Housing Spaces From A Viewpoint of House Spirits Religion

Na Ha Young

Department of Architecture Engineering Graduate School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Cheon Deuk Youm)

(Abstract)

Living spaces are the results of social environment and also the reflection of the viewpoints by their residents toward human culture and society. Therefore, in studying living spaces, the true essence of the spaces could be easily distorted when cultural and symbolic motives and values are disregarded and only their apparent characteristics are looked into. Hence, it's necessary to simultaneously understand both physical dwelling spaces from architecture's view points and social ideas, simultaneously, of people who form and interact with the spaces.

Hence, this paper tries to study housing religion which is one of shamanistic religions which, in turn ,have been the fundamental element of ancient religions and came into existence on the basis of dwelling spaces. This study presumes that house religion may have been permeated with its creators' ideas about living and those ideas could be one of those factors which plays a role in organizing of dwelling spaces.

As such, with these prior analyses, this thesis attempts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various dwelling spaces via the characteristics and functionalities of various house spirits religion which are mentioned in a local house religion and

also will find out spatial harmony of Korean traditional living spaces by way of correlations among living spaces, people, and personalized house spirits religion.

To achieve these objectives, a comprehensive approach of utilizing many research results previously done on Korean folklore has been used producing the following study results:

1) Almost all traditional Korean houses have assigned a house spirit religion to their individual dwelling space. This means a traditional house was considered as a scared space in a secular world called human society and the space was actually intended to protect sacredness of dwelling places from earthliness outside.

So when the hierarchy of house spirits in housing religion is projected to a Korean traditional house, it can be shown that a dwelling house as a building was personified to a respectable human status. In other words, it can be concluded that each space was synonymous with a dwelling place for each house spirits religion and was considered a sacred godly place.

In a nutshell, not only each space in a Korean traditional house was a physical and functional space, but also it formed a scared spatial place along with the concept of house spirits religion intending to ward off disasters and enjoy a comfortable life through those religious symbols and meanings.

2) In order to understand the fundamental theory of organization of Korean traditional housing spaces in the context of house spirits, human beings and spaces, a look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a house spirit and its matching dwelling space shows that interrelationship among house sprites are the reflection of the aspects of life by the creators of the housing religion themselves and that each spirit's spatial assignment symbolizes the very own spatial organization rules of human dwelling spaces.

2-1) The status of each house spirit for a dwelling space is a reflection of the

importance and spatial status of the space. That is, a spirit is a reflection of its matching human dwellers and their lives while the hierarchy of spirits a reflection of the hierarchy of dwelling spaces.

2-2) An analysis of Munjon Bonpuri of Cheju Island and dancing songs of Sungju Goot of Hwasong, Kyonggi-Do shows that spatial organization principles of Cheju traditional common people's houses were putting a kitchen and outhouse in each other's opposite direction and the entrance door to a house and its courtyard were not adjacent each other but separated by ollae and these principles were reflected in house spirits shamanism, while according to Sungju Goot songs, the check-and-balance relationship between Chowang Shin and Sungju Shin is permeated in the spatial relationship between kitchen and daechungmaru. These research results implies that house spirits and their relationships in the Korean shamanistic myths are reflections of the ways of living by the very own creators of the myths and symbolically represent the spatial organization of dwelling spaces.

Housing shamanistic religion which has long been existing with residents and their lives is seeped with the viewpoints of the residents toward life, and hence understanding the meanings and organization of Korean traditional housing can reveal commonly practiced principles of spatial organization of the traditional houses. Therefore an analysis of Korean traditional housing on the basis of humanistic social ideas will help learn Korea's traditional houses which need to be understood in various methods.

부 록

<家神神話 및 관련 神話>

1. 성주양반¹⁾

성주님은 하늘위의 제석궁²⁾에서 태어나 자랐는데, 이름은 유광덕이고, 아명은 유소이다. 성주님은 하늘에서 죄를 지어 지상의 인간계로 유배되어 내려왔다. 그러나 성주가 되려면 집이 있어야 집안의 성주가 될텐데 집이 없어 집을 지으려고 풍수사를 불러 집터를 잡는다. 쇠를 놓고 청룡백호 혈에다 안산이 좋은 터를 잡았다. 그리고 아랫마을 윗마을의 일꾼들을 모아다가 은가래 은줄매고 놋가래 놋줄을 매어, 한가래 떠내니 학이 새끼를 치려고 자리잡고 두가래를 떠내니 금두꺼비가 알을 슬었고, 세가래를 떠내니 청룡 황룡이 서려있다. 이렇게 좋은 집터를 잡아놓고 이번에는 온갖 대목수를 불러다가 집을 짓기로 했다. 전라도 자롱쇠가 좋다고 하여 그 자롱쇠를 구해다가 풀무를 차려놓고 도끼, 자귀, 대패, 줄, 낫 온갖 연장을 만든 후에 전라도 해남땅의 솔이 좋다하여 그 나무를 베려고 하니 재목으로는 적격이지만 그 나무 끝에다 황새 덕새가 새끼를 쳐서 벨 수가 없고 또 한 고개를 넘어가니 재목감이 좋은 나무가 있으나 그 나무끝에도 역시 까마귀와 까치가 새끼 쳐서 못 베었다. 또 한 고개를 넘어가니 일천가지가 하늘로 딱 버러져 명과 복과 자손복, 재물복이 주렁주렁 열려 있어 이 나무를 베려고 대목이 도끼로 한번을 내리치니 도끼날이 나무에 붙고 도끼자루가 손에 붙는다.

“이게 웬일이냐, 점을 쳐보자” 대목이 문복장이에게 가서 점을 쳐보니 “산신님의 뜻이니 산신제를 지내야 하겠습니까”고 한다. 그래서 땃밥 짓고 대추 찌고 삼색 실과 바쳐 산에다 자리 깔고 산신제를 지내고 나니 나무에 붙었던 도끼도 떨어지고 손에 붙었던 도끼자루도 떨어진다. 이번에는 대목이 그 도끼로 삼 세 번을 찍으니 그 나무가 넘어간다. 벤 그 나무 웃동은 잘라내서 산신님께 바치고 밑동은 잘라내서 국수³⁾님께 바치고 가운데 통은 잘라내서 다듬은 후에 톱질하여 와가를 지어 온갖 세간을 갖추어 놓고 뜰 안에는 연못을 파서 금잉어 황잉어가 놀고 대문에는 입춘을 써 붙였다.

하늘에서 유배되어 온 유광덕은 이렇게 집을 잘지어 성주님이 되었으나, 장가를 가야만 성주님이 양위분이 될 수가 있었다. 이때 하늘에 있는 옥녀 세분이 역시 지상으로 유배되어 성주를 찾아오는 길이었다. 그들은 우연히 길에서 만났다. “남자가 가는 길에 웬일

1) 김태곤, 한국의 무속신화, 집문당, 1985, pp.105-107

경북 안동 지역에서 집을 새로 짓거나 이사하여 성주를 모시는 봉안의식에서 불리는 무가임

2) 불교에서 말하는 帝釋天의 궁전

3) 높은 산꼭대기에 모셔진 마을의 수호신

로 부인이 막고 가는 게요?”하고 성주님이 시비조로 물이니, “여인네가 가는 길을 남정네가 웬일로 막고 가십니까?”하고 옥녀 세분이 대꾸한다. “나는 홀몸이라서 부인을 구하러가는 길이에요”하고 성주님이 말하니까 “나도 성주양반을 찾아가는 길입니다”고 옥녀 세분이 대답한다. 이렇게 만나서 그들은 하늘이 맺어준 천생연분인 것을 알고 백년가약을 맺어 성주님은 옥녀 세분을 모셔다가 한분은 삼신할머니로 모셔놓고 또 한분은 제석님⁴⁾으로 모셔놓고 나머지 한분은 조왕님으로 모셨다. 그래서 성주님은 이렇게 옥녀 세분을 집안에 모시고서 함께 살게 되었는데, 삼신할머니는 애기를 낳게 해주고, 제석님은 천석만석 재물을 불어나게 해 주고, 조왕님은 삼을 갈아서 벗겨내 하늘에다 베풀 한 끝을 놓고 베풀 짜서 성주님 도포 짓고 부지런히 살림을 잘했다. 이와 같이 성주님은 옥녀 세분을 부인으로 맞아 한 집안에서 의좋게 살며, 집안으로 재물 복을 불러들이고 굶은 일은 물려서 인간들이 잘 살 수 있게 마련해 주었다.

2. 황우양씨⁵⁾

천하국의 천사랑씨와 지하국의 지탈부인이 서로 혼인을 맺었다. 그후 지탈부인은 애기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지탈부인은 열달이 지나자 아들을 낳았는데, 아이의 얼굴은 수려하고 풍채 또한 장대했다. ... 중략 ... 부모는 이 아이의 이름을 황산뜰에서 태어났기에 황에양씨라 지어주고 애지중지 키웠다.

황우양씨는 점점 자라 스무살이 되자 부인을 얻어 가정을 이루었다. ... 중략 ... 천하궁에서 난데없이 강풍이 동쪽에서 휘몰아쳐 일천 난간과 누각들이 휩쓸려 폐허가 되어 버렸다. 그래서 천하궁에서는 만조 백관을 불러 성을 다시 이룩할 방법을 논의하게 되었는데 그 중 서대문에서 사는 광처자가 나서며 ‘황산뜰에 사는 황에양씨가 아니면 성주⁶⁾를 다시 이룩할 이가 없습니다.’하고 아뢰었다.

... 중략 ... 그 이튿날 아침이 되자 과연 황에양씨는 갑옷과 투구를 벗어놓고 어머니를 마중하러 나오거늘 차사는 기다리고 있다가 와르륵 뛰어 내려가 황에양씨의 발을 담짝 안은 후에 배자를 꺼내어 내 보였다. ‘여봐라, 그대는 어떤일로 나를 잡아가려 하는가?’ ‘천하궁에 성주를 이룩하려고 당신을 잡으러 온 것이니 어서 바빠 가십시오.’ ‘여봐라, 천하궁은 우리 아버지의 땅이요, 지하궁은 우리 어머니의 땅이로다. 그 누가 날 감히 잡아가려 하겠는가?’ ‘당신은 이미 나에게 잡힌 몸이니 아무 말 말고 어서 갑시다.’ 차사가 서리같이 재촉하니 황에양씨는 그러면 자기에게 석달간의 말미를 달라고 부탁했다. 차사가 이를 거절하자 그는 다시 두달간의 말미를 청했으나 역시 거절당하고 끝내 삼일간의 말

4) 불교에서 말하는 하늘 위의 天王

5) 김태근, 한국의 무속신화, 집문당, 1985, pp.123-134

6) 城主神의 성주가 아니고 건축물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말이다.

미를 받아 가지고는 집으로 돌아왔다. … 중략 … 이력저력 부인이 채비를 차리는 사이 허영계 동이 트기 시작하는 지라 부인은 황에양씨를 깨웠다. ‘대감님, 어느덧 닭이 울고 동이 텅이니 어서 일어나 떠날 준비를 하십시오.’ 황에양씨 눈을 떠보니 어느새 모든 채비가 채려져 있기에 깜짝 놀라며 기뻐했다. … 중략 … ‘대감님 성주를 이룩하러 가는 도중에 어른이건 아이건 누가 무엇을 묻더라도 대꾸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천하궁에 당도하여 성주를 이룩할 때에는 낡은 재목을 팔세 마옵시고, 새재목을 탐내지 마옵소서.’ ‘여보, 대장부가 길을 떠나는데, 부인이 이렇듯 잔소리를 해서야 되겠소? 어서바빠 들어가시오.’

부인과 이별을 한 황에양씨는 이튿 저뜰을 지나 소진뜰에 당도하였다. 이때 마침 소진왕이 지하국에 돌성을 쌓으러 갔다 오는 길에 황에 양씨와 마주치게 되었다. … 중략 … ‘만일 내가 다루던 나무를 만지면 목살이 퍼질 것이요, 내가 다루던 돌을 만지면 석살이 퍼질 것이요, 내가 다루던 흙을 만지면 토살이 퍼질 것이니 살아 돌아올 수는 없을 것이오.’ ‘그러면 나에게 그 사개법을 알려주소.’ ‘사개법을 알려줄테니 나와 옷도 바꿔입고 말도 바꿔 탑시다.’ 그래서 황에양씨는 할 수 없이 이를 허락하고 자신이 입었던 옷은 소진왕에게 입혀주고 대신 소진왕이 입었던 지털랭이 옷을 대신 자기가 입은 다음, 자신이 타던 말을 소진왕에게 주고 소진왕이 타던 쯤먹은 안장을 끈으로 달아맨 비루먹은 당나귀를 탔다. … 중략 … 소진왕은 황에양씨와 옷바꿈에 말 바꿈까지 한김에 황에양씨의 부인도 겁탈을 할 작정을 하고 이튿 저뜰을 지나 황산뜰로 향하였다. … 중략 …

소진왕은 봉어눈을 부릅뜨고 우레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집안으로 들어 닥쳤다. ‘이래도 내가 내말을 안 들을거냐?’ 부인은 이제 그물에 걸린 고기나 개에게 물린 닭의 신세가 된 자신의 처지에 기가 막혔으나 생각을 가다듬고 대답했다. ‘여보시오, 우리가 백년가약을 맺는 것은 좋으나 新情이 좋은들 舊情조차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일 저녁이 시아버지의 기일이요, 모레 저녁이 시어머니의 기일이오니, 제사를 지낸 다음 백년 동락 하십시오.’ … 중략 … 부인은 소진왕을 불러 말했다. ‘여보시오, 내가 제사를 지내고 보니 내몸에 일곱가지 귀신이 들려서 남자는 처가살이 살이 뻗치고, 여자는 시집살이의 살이 뻗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나의 살림살이를 정리하여 그대의 뜰로 내려가 뒷동산에 별당을 짓고서 삼년간만 격리된 생활을 하면 귀신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백년 동락 하십시오.’ 소진왕은 별수없이 그렇게 하라하고 그날로 살림살이를 정리해서 소진뜰로 내려와 뒷동산에 별당을 지은 후 부인을 거기서 살게 하였다.

한편 황에양씨는 … 중략 … ‘초경녘 꿈에 씻던 것이 돌양이 남아뵈는 것은 그대 집이 간 곳 없고 주춧돌이 여기저기 놓여 있다는 것이고, 이경녘의 꿈은, 입었던 등걸이 깃만 남아 뵈는 것은 그대 부인이 남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요, 또한 삼경녘의 꿈은 잡숫던 주발이 굽이 돌아 보이는 것은 그대가 먹던 우물에 올챙이만 우글우글 끓는다는 것이오.’ 문복쟁이의 말에 기가 막혀 급히 말에 올라 채찍질하여 서둘러 지하뜰로 내려왔다. … 중략 … 후원을 들어서니 후원을 둘러싸고 있던 완자담은 허물어져 버리고 없었다. 황에

양씨는 무정한 세월을 타하며 눈물짓고 한숨을 내쉬 다음 소진뜰로 발길을 옮겼다. 소진뜰에 당도한 황에양씨는 ... 중략 ... 황에양씨는 부인의 말대로 재주를 세 번 넘어 청새로 변한 다음 부인의 치마폭에 싸여 들어가 마루에 몸을 숨겼다. 그러자 부인은 옥 단춘이와 단단춘이를 불러 분부했다. ‘소진왕과 내가 이제 백년가약을 맺게 되었는데 어찌 술 한잔이 없을 수 있느냐, 술상을 차려와서 술을 따라라.’ 그래서 옥단춘이와 단단춘이가 술상을 차려오자 부인은 단단춘이를 시켜 소진왕에게 자꾸 술을 권하게 하였다. ... 중략 ... 청새로 변했던 황에양씨는 재주를 세 번 넘어 다시 본모습으로 변한 뒤 잠들어 있는 소진왕의 정수리를 벗겨 발뚧꿈치에 썩워놓고, 발뚧꿈치를 벗겨 정수리에 썩워놓는 대뜸 아래로 대굴대굴 굴러 팽개치고 호령했다. ... 중략 ...

... 황에양씨는 말을 마치고는 돌함을 짜서 그 안에 소진왕을 넣어 장승을 만들고서 대로에다 세워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총을 받게 하고, 소진왕의 처를 잡아 내어 서난 하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오다 가다 빨은 침이나 얻어먹게 하고, 소진왕의 자식들은 노루와 사슴, 까치, 까마귀, 꿩, 비둘기로 만들어서 높은 산에 풀어 놓아 일들 포수들의 사냥감이 되게 하였다. ... 중략 ... ‘그래도 대감님은 큰 재주를 배우셨습니다. ... 그런데 소첩은 아녀자의 몸으로 사십이 넘도록 일점 혈육하나 놓지 못하였사오니, 우리가 죽은 후 상주는 누가 따라오며, 삭망일에는 누가 물한그릇 떠서 바치겠습니까?’

부인이 구슬뜨게 한탄하자 황에양씨는 부인을 위로했다. ‘이제는 할 수 없는 일이 되었으니 우리가 일평생 금슬 좋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거든 나는 성주가 되고, 그대는 지신이 되어 촌촌 면면을 다니다가 인연이 닿는 가정에 들어가서 집도 지어주고 부귀공명, 자손 창성, 만대 유전을 시켜주면 그것도 보람있는 일이 아니겠소?’ 이렇게 하여 황에양씨 부부는 후에 각기 성주신과 지신이 되어 가가호호마다 숭앙을 받고 대접을 받게 되었다.

3. 성조씨 安心國⁷⁾

홀연히 천지가 개벽한 후에 삼황(三皇)⁸⁾ 오제(五齊)⁹⁾의 시절이 열었다. 천황씨(天皇氏)가 처음 등장하여 ... 공자님이 태어나시어 시경과 역경을 저술하시고 삼강오륜, 인의예지, 선악, 반상(班常), 유식, 무식 등에 대해 가르쳤다.

그때 그 시절의 성조(成造)의 본은 어디일까? 중국이나 조선이 아니고 서천국(西天國)이 본이었다. 부친은 천국대왕이고 모친은 옥진부인, 조부는 국반왕씨(國飯王氏), 조모는 월명부인(月明夫人)이었다. 외조부는 정반왕씨(淨飯王氏), 외조모는 마야부인(摩耶夫人), 부

7) 김태근, 한국의 무속신화, 집문당, 1985, pp.107-123

8) 고대 중국 전설에 나오는 세 임금(태호 복희씨, 염제 신농씨, 황제 유웅씨)

9) 중국 태고 시대의 다섯 임금(복희, 신농, 황제, 소호, 전욱)

인은 계화부인(桂花夫人)이었다. 성조의 부친인 천궁대왕의 나이 서른 일곱, 모친인 옥진부인의 나이 서른 아홉에 이르도록 슬하에 일점 혈육이 없었다. 부부가 매일 한탄하다가 하루는 점장이를 불러다 점을 쳤는데, 그 점장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서른전의 자식은 팔자소관이지만 마흔전의 자식은 착한 마음으로 공을 닦고 부처님께 치성드리면 낳을 수 있습니다.” 부인이 그 말을 듣고 온갖 공을 다 들이려고 고산(高山)의 송죽을 베어 천문(天門)에 기도한 다음, 문전에 황토를 뿌리고 … 제사를 지내며 정성껏 빌었으니, 공든답이 무너지며 심은 나무가 꺾어질까 대왕과 부인이 좋은 날을 가리어 동침하게 되었는데, 초경에 꿈을 꾸니 검은 새 두마리가 푸른 벌레를 문 채 베개 좌우편에 앉아 있고, 국화꽃 세송이가 베개 위에 피어 있는 게 보였다. 이경에 꿈을 꾸니 삼정승 육조판서 자미성이 부인 앞에 내려와 금쟁반에 붉은 구슬 세 개를 굴러보인다. 삼경에 또한 꿈을 꾸니 궁중의 방안에 오색 구름이 모여들고 어떤 선관(仙官)이 황학을 탄 채 오색구름에 싸여서 대궐문을 크게 열고 부인 곁에 앉으면서, “부인은 놀라지 마옵소서. 나는 도술천의 왕인데 부인의 공덕과 정성이 지극한 고로, 하늘이 감동하고 부처님이 지시하여 자식을 주러왔습니다.” 일월성신의 정기를 받아 동자 하나를 마련하여 부인에게 건네주면서 말하기를 “이 아이의 이름을 안심국(安心國)이라 짓고, 별호를 성조씨(成造氏)라 하시오” 부인이 한없이 기뻐하다가 무심한 바람소리에 잠에서 깨고 보니 성관은 간데 없고 촛불만 깜박였다.

꿈 이야기를 국왕에게 말하니 국왕도 기뻐하였다. 이튿날 해몽자를 불러 꿈 이야기를 들려주니 “초경에 검은새 두 마리가 푸른 벌레를 물고 있었던 것은 왼쪽은 대왕의 직성이요, 오른쪽은 부인의 영혼이니 푸른 벌레 두마리를 비취 같은 두분의 금실을 뜻하며, 국화꽃 세송이는 나라의 삼정승 육조판서가 날 징조입니다. 이경에 부신 삼정승 육조판서 자미성은 삼신(産神)과 여러 부처가 대왕을 모신 것이고, 금쟁반의 붉은 구슬 셋은 나라에 득남할 꿈입니다. 삼경에 얻은 꿈에서 선관이 부인의 침실에 앉은 것은 삼신이 하강한 것이니 일월성신의 정기를 받아 동자를 마련하여 부인에게 주셨은 즉 이제 득남하여 소년 공명할 것이니 아무 염려 마옵소서” 과연 그 말대로 그달부터 잉태하여 … 열달동안 밴 후에 삼신이 내려와서 부인이 품은 아이를 세상으로 인도하는데, 명덕왕(命德王)은 명(命)을 주고 복덕왕(福德王)은 복을 주었으며, 분접왕(分接王)은 가랑이를 들고 금탄왕은 열쇠를 들고 부인을 침노했다. 부인이 혼미한 가운데 아이를 낳았는데, 딸이라도 반가울텐데 옥같은 귀공자였다. 부인이 정신차려 침금에 의지한 채 아기 모양을 살펴보니, 얼굴은 관옥(冠玉)같고 풍채는 두목지(杜牧之) 같았다. 부인이 크게 기뻐하며 관상쟁이를 불러다 아이의 관상을 물어보니 … “이마가 높으니 소년 공명할 것이며, 코 끝이 높으니 부귀 공명 누릴 것이요, 양 미간이 깊으니 전처를 소박하겠고, 일각(日角)¹⁰⁾이 낮으니 이십전 열여덟살에 천리 머나먼 곳에 있는 황토섬으로 3년 귀양을 가겠습니다.” 관상쟁이가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한 후에 부인에게 울었다. 부인이 읽고 나서 간장이 끊어질 듯

10) 이마의 한복판을 말함

매우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 부인이 애통하다가 지난번 꿈을 생각하자 눈물을 그치고, 아기의 이름을 안심국이라 짓고 별호는 성조라고 불렀다.

성조가 탈없이 잘 자라, 두살에 걸을 줄 알아 못 가는데 없이 돌아다니고 세살에 말을 하여 소진, 장의처럼 유창한 구변에, 네살때부터는 예를 행하여 효제충신을 본받으며, 다섯살에 서당에 입학하였는데, 사광과 같이 총명하였다. 세월이 흘러 성조의 나이 십오세가 되어 시경과 역경을 비롯하여 백가의 만권 서책들을 통달하지 않은 게 없었다. 하루는 성조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대장부가 세상에 나와 무슨 공을 세워야 천추에 이름을 빛낼 수 있을까?’ 그때 마침 지하궁(地下宮)을 살펴보니 새나 짐승도 말을 하고, 까마귀도 벼슬하며, 나무들도 걸어다니고, 옷나무에 옷이 열리고, 밥나무에는 밥이 열고, 쌀나무에는 쌀이, 국수나무에는 국수가 열리는 등 온갖 과실이 다 열어서 세상사람은 아무도 가난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인간들은 먹는 것은 풍족하나 아직 집이 없어 숲에서 살았기 때문에 유월의 더운 날과 백설한풍 몰아치는 추운 겨울을 아주 어렵게 피하고 있었다. 성조가 생각하기를, ‘내가 지하국에 내려가서 빈 산의 나무를 베어다가 추위와 더위를 피하게 하고 귀한 것과 천한 것을 가르치면 성조의 빛난 이름이 누만년이나 전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성조님이 부모님 앞에 나아가 인간의 집 없는 사정을 애절하게 고하자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였다. 성조는 부모님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지하국에 내려가서 주인없는 빈 산에 이르렀다. 산에 온갖 나무가 다 있는데 어떤 나무는 산신이 앉아 있어 못쓰겠고, 어떤 나무는 당신 지키는 나무라서 안되겠고, 또 한 나무는 까막까치의 둥지가 있어 안되겠고 어떤 나무는 국수당 지키는 나무라서 못 쓰겠으니, 한 그루도 쓸만한 나무가 없었다. 성조는 나무 없는 사정을 자세히 기록하여 상소문을 지어 손에 들고 하늘의 은혜에 감사드린 다음, 천상 옥경으로 날아가 옥황상제 앞에 꿇어 엎드려 상소문을 올렸다. 옥황상제가 상소문을 읽고 나서 성조를 기특하게 생각하고 제석궁(帝釋宮)에 명령하여 솔씨 서말 닷되 칠흙 오작을 주도록 하였다. 성조가 그 솔씨를 가지고 다시 지하국으로 내려와서 주인 없는 빈 산으로 가 여기 저기 솔씨를 심어 놓고 돌아갔는데 이때, 성조의 나이가 어느덧 삼년이 흘러 열여덟이었다.

대왕과 부인이 성조의 장성함을 기특히 여기었는데, 하루는 모든 신하를 모아 국사를 의논한 후에 성조의 신부감을 간택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좌정승이 엎드려 아뢰었다. “황회궁에 한 공주가 있는데, 길쌈 솜씨가 아름답고 숙녀의 기상을 갖추었으니, 그가문에 청혼하소서.” 대왕이 그 말을 좇아 황회궁에 청혼하니 황회왕도 선뜻 허락해서 길일을 택하여 황회궁에 사주를 보낸 다음, 납폐도 보냈다. … 부부로 인연을 맺어 여필 중부할 것을 서원하며 혼례를 마쳤다. 성조가 먼저 신방에 들어가서 해가 저물 무렵에 신부를 영접하였다. 두 사람은 술과 안주를 갖추어 서로 주고받고 화촉동방에서 백년의 인연을 맺으며 그날 밤을 보내게 되었으나, 하늘이 정한 운수가 불리하고 연분이 부족하여, 신랑은 신부인 계화씨를 소박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박대함이 아주 심하였다.

그때 성조가 술과 여자에 방탕하여 화류계에 몸을 던진 채 나라 일을 돌보지 않고 있었

다. 너덧달이 지나자 조정의 간신들이 이 사실을 대왕에게 아뢰었다. 대왕이 하는 수없이 법전을 펼쳐놓고 법조문을 살펴보니 ‘삼강오륜을 모르는 자,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 어진 아내를

소박하고 이웃과 불화하여 친척과 불목하는 자는 자세히 진상을 조사하여 국법대로 다스리되, 저 천리 밖 무인도 황토섬에 삼년간 귀양을 보낸다’고 되어 있었다. 대왕은 그만 천지가 아득해 지는 것만 같았으나, 국법을 시행하기로 결심하고 성조를 급히 불러 귀양길에 오를 것을 재촉하였다. 성조는 하릴없이 부왕의 명을 따라 남별궁(南別宮)에 들어가서 모친에게 하직하였다. “불효자 안심국은 부왕님께 죄를 지어 천리 밖 무인도 황토섬에 삼년 귀양을 떠납니다.” … 성조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서럽게 우니 선원들도 목을 놓아 통곡하며 “삼년 귀양살이 동안에 몸 성히 계시다가 무사히 환국하옵소서.” 혼을 들어 거둬 절한 후에 선원들은 배를 띄워 고국으로 돌아갔다. 성조는 선원들과 헤어진 후 눈물을 친구 삼고 새와 짐승을 벗을 삼아 지냈다. 이렇게 하루 이틀을 살다보니 어느덧 한달 두달이 지나고 잠깐 사이에 일년이 되었다. 세월이 흘러 이 년이 되고 예정된 삼 년이 다 되었다. 성조는 오늘에나 소식이 올까 내일에나 풀려날까 하며 고국을 그리워하며 부왕의 소식을 기다렸다. 그러나 사년이 다 되도록 기다리는 소식은 오지 않았다. 의복이 부족한데 소슬한풍 찬바람에 백설이 흩날리니 … 여러 달 여러 날 동안 익힌 음식을 못 먹어 온 몸에 털이 나서 짐승인지 사람인지 분간할 수 없게 되었다.

갑자 춘삼월이 되어 초목마다 속잎이 새로 나오며 온갖 꽃이 만발하는데, 두견새, 앵무새, 까막까치, 원앙새, 제비, 백학을 비롯하여 소식을 전해준다는 파랑새가 성조 앞에서 지저귀고 있었다. 성조는 고국을 생각하면서, … “반갑다 파랑새야 어디갔다 이제 왔느냐, 인적 끊어진 이 곳에 봄빛따라 왔으니 너의 편지 가지고 가서 서천국에 돌아가서 명월각(明月閣)에 부쳐다오. 명월각의 개화부인은 나의 백년가약을 맺은 임이란다.” 이렇게 부탁한 다음, 편지를 쓰려고 보니 종이도 붓도 먹도 없다. 헤어진 옷자락을 펼쳐놓고 무명지를 깨물어 철서를 올리기를 ‘부모님께서는 옥체 무양(無恙)하옵시며, 부인 또한 이한 후로 부모님 모시고 몸 건강하신지요 이 몸은 황토섬에 귀양온 후, 어려움이 막심한 가운데 이제는 먹을 양식과 옷마저 떨어져 추위와 배고픔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서러운 사연을 낱알에 기록한 후에 파랑새에게 부탁하니 파랑새가 편지 봉투를 덥석 물고 두 날개를 훨훨치며 서천국을 향해 날아간다. … 개화부인이 이처럼 눈물지며 슬피 울고 있는데 파랑새가 공중에서 우짖는 것이었다. 개화부인이 파랑새를 바라보면서 “새야 파랑새야 너는 유정한 짐승이니 찬하를 돌아다니다가 황토섬에 들렀거든랑 우리 태자 성조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아다가 나에게 전해다오.” 이 말이 채 마치기도 전에 파랑새가 입에 물었던 편지를 부인의 무릎에 툭 떨어뜨리고 날아간다. 부인이 이상히 여겨 편지를 뜯어보니 남편이 필적이 분명하나, 눈물이 앞을 가려 사연을 읽을 수가 없다. 잠시 눈물을 훔친 후에 편지를 집어들고 남별궁으로 달려갔다. … 이렇게 서럽게 우니 삼천궁녀들도 같이 눈물을 흘리고 울어 곡성이 낭자하였다. … 늙은 신하가

아뢰기를 황토섬으로 귀향하신 태자의 편지가 왔나이다. 대왕이 그 말을 듣자 급히 편지를 올리게 하여 사연을 살펴보니 글자마다 설움이었다. 대왕은 마음이 아파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다가 간신을 귀향보내고 금부도사에게 명령하여 좌우승상을 모시고 가 황토섬의 성조태자를 귀양 풀어 모시고 오라고 하였다. 명령이 떨어지자, 금부도사는 일등 목수를 불러다가 큰 나무를 베어내어 팔구 간(間)이나 되는 배를 만들어 순금색 비단돛을 달고나서, 스물네 명의 선원들과 도사공에게 호령하기를 “황토섬이 어디쯤이나 얼른 바빠 행선하라” …

“이제 삼년여의 귀양살이를 지내고 다시 환국하게 되었으니, 바람도 순히 불고 물결도 잔잔하게 해 주시어 무사히 도착하게 해 주시기를 엮드려 비나이다. …” 빌기를 다한 후에 배를 띄워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닳은 감고 돛은 달아, 어기어차 소리하며 복을 뚱뚱 올리면서 떠나는 것이었다.

그때에 성조는 황토섬을 바라보면서 “해변의 청산아 잘 있거라, 나무도 돌도 잘 있거라.” 이렇게 하직하고 돌아오는데, 이때에 추월월 보름께여서 이슬을 하얗게 내리고 달빛은 밝게 빛났다. … 며칠 더 항해하여 드디어 서천국에 당도하였다. 선창에 배를 대고 썰매에 들어가는데, 좌우 승상이 웅위하여 육조의 신하들이 나와 맞고, 어전 사령들은 앞뒤로 늘어서서 삼현 풍악 소리에 권마성을 올려대니, 그 소리가 사방에 진동하여 태자의 위엄을 높이었다. 마침내 썰매에 들어가 부왕 앞에 절을 올리니 대왕이 부자의 애정과 군신의 의리로써 태자의 무사 귀환을 크게 반기고 기뻐하면서, 옥에 갇힌 죄인들과 삼년 귀양간 죄인들을 무죄 석방시키고 큰 잔치를 열게 하였다.

육진부인은 성조가 귀양에서 풀려났다는 소식을 듣자 그간에 깊이 든 병이 몇 달 사이에 완쾌되어, 옥경루에 높이 올라가 성조 오기만을 고대하였다. 이윽고 성조가 남별궁에 들어오니, 부인이 급히 달려 내려가 성조의 손을 잡고 그간의 고생을 수없이 위로하였다. 모친과 더불어 지난 일을 대강 이야기 나눈 성조는 이날 밤 삼경에 부인이 있는 명월각을 찾아가서 서너해 동안 못다한 애정을 나누게 되었다. 술잔을 서로 권하고, 대화를 나누며, 원앙 베개와 비취 이불 아래 운우(雲雨)의 정을 누리면서 그날 밤을 지내는데, 도솔천궁의 산신이 내려와 열자식을 점지해 주었다. 이리하여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아들을 차례로 낳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딸을 차례로 낳았는데,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무럭무럭 잘 자랐다.

그때 성조의 나이 칠십 백발에 이르렀는데, 하루는 지난일을 돌이켜보며 이런 생각을 하였다. “아 슬프구나, 천지간에 잠깐 떠도는 하루살이 같은 신세요, 아득한 바다에 한톨의 줍쌀처럼 미미한 인생이어라 … 내가 소년시절에 천상궁에 올라가서 술씨를 얻어다 지하궁에 심은지가 어느덧 사십구년이 되었구나, 그동안 어떤 나무들로 자랐는지 구경도 하고 집이나 지어보자.”

성조가 열자식을 데리고 지하궁에 내려와 종남산에 들어가서 나무마다 조사하였다. 철쭉 나무, 소나무 … 이런 나무들이 무성하게 서 있건만, 연장이 없어 베어 낼 수가 없었다.

성조가 한 피를 생각하고는 자식들을 데리고 시냇가로 가서, 왼손에는 함박을 들고 오른손에는 쪽박을 들고, 철을 일구기 시작하였다. ... 목수를 뽑아 집을 짓기 시작하였다. 서른 세명의 이름난 목수들이 금도끼를 둘러매고 가서 대·중·소의 나무들을 베어다가, 굵은 나무는 가늘게 다듬고, 가는 나무는 굵게 깎아 집 재목을 다 만든 후에, 주과포혜를 갖추어서 천지 신명에게 제사를 나서 집을 지어 나갔다. 상품의 나무로는 궁궐을, 중품의 나무로는 관사를 짓고, 그 나머지로 백성들의 집을 마련해 주었는데, 집터를 잡아 흙을 고르는데까지 일일이 감독하였다. ... 이려고 나서 성조가 지남철을 내놓고 이십사 방위를 따져 보는데, 동쪽을 바라보니 청룡산이 응하여 화재의 신을 막아내어 누런 벼, 보통 벼, 콩, 기장, 조 들이 곳간에 가득 찰 것이요, 남쪽을 바라보니 주작산이 응하여 관재와 구설을 막아내어 삼정승 육조판서며 조정신화와 사대부가 날 상이었다. 서쪽을 바라보니 백호산이 응하여, 이 집안에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장성하면 지식이 넉넉하여 나라의 대신을 지내겠고, 딸은 자라 숙녀의 절개를 지녀 다른 가문에 출가하면 정렬부인이 될 것이요, 북쪽을 바라보니 현무산이 응하여, 물건이나 재물 잃는 것을 막아주어, 돈과 전답이 해마다 불어가 물처럼 재물을 벌어들이니, 아무리 써도 줄어들지 않는 소원이 이루어 질 상이었다. ... 상량문에는 다음과 같이 썼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의 빛에 응하고, 아래로는 인간의 오복을 갖추었다.” 이렇게 입춘서를 써서 붙인 후에, 성주는 입주성조가 되고, 계화부인은 몸조성조가 되었으며, 다섯아들은 오토(五土)의 신이 되고 다섯딸은 오방(五方)부인이 되었다. 그때 도편수는 용린갑 투구를 쓰고, 장창을 높이 들어 천가지 재난, 백가지의 겁살과 오방의 살기를 막아 주었다.

성조가 어진 성덕과 식견을 지니고 인간 세상에 내려와 억조창생에게 집을 지어주었으니, 바다같은 성덕이요 태산같은 공덕이다.

삼가 성조께 비오니 상량에 응접하소서.

4. 단군신화¹¹⁾

위서(魏書)에 말하기를 지금으로부터 2천년전에 단군왕검이 있었는데 그는 도읍을 아사달에 정하고 나라를 열되 이를 조선이라 부르니, 그때는 요(堯)임금과 같은 시대라 하였다. 옛글에 말하기를 옛날에 환인의 아들 환웅이 있었는데, 항상 천하에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탐내거늘 아버지가 이롭게 할만 하였다. 이에 천부인 세 개를 주고 가서 다스리게 하였다. 환웅이 무리 삼천명을 이끌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밑에 내려와서 거기를 신의 고을이라 부르니 그가 곧 환웅천왕이었다. 그는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식, 수명, 질환, 형벌, 선악 등 무릇 인간의 360여가지 일을 맡아서 다스리고 교화하였다. 그

11) 이은봉, 단군신화 연구, 온누리, 1986, pp.100-101

때에 한 꿈과 한 호랑이가 같은 굴에서 살며 항상 환웅에게 빌기를 “원컨데 사람으로 변화하게 해 주소서”하였다. 한번은 신령님이 쑥 한다발과 마늘 20개를 주며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백날동안 햇빛을 보지 아니하면 곧 사람이 되리라”하였다. 꿈과 범이 이것을 받아먹고 금기하기 삼칠일만에 꿈은 여자의 몸이 되고 범은 능히 참지 못하여 사람이 되지 못하였다. 웅녀는 그와 혼인해 주는 이가 없으므로 항상 신단수 아래에서 아이 갖기를 빌었다. 환웅이 이에 잠깐 변하여 그와 결혼하고 아들을 낳으니 이를 불러 단군왕검이라 하였다. 단군은 요임금이 즉위한지 50년인 경인년에 평양에 도읍하고 이를 조선이라 불렀으며, 또 도읍을 백악산 아사달로 옮기었는데, 그곳을 또 궁홀산 또는 아사달이라고도 하니 그가 나라를 다스린지 1500년이였다. 주나라의 호왕이 즉위하고 을묘년에 기자를 조선에 봉하니 단군은 장당경으로 옮기었다가 후에 아사달에 돌아와 숨어서 산신이 되었다. 나이 1908세였다고 한다.

5. 삼승할망¹²⁾

1. 동해요왕따님아기가 불효하여 인간세상에서 産育神하며 먹고 살라고 쫓겨났다.
2. 동해요왕따님아기는 임박사부인에게 임신을 시켜주었으나, 해산 시킬줄을 몰라 산모가 위험해졌다.
3. 임박사가 옥황상제에게 호소하니 명진국따님아기를 産育神으로 뽑아 보냈다.
4. 동해요왕따님아기와 명진국따님아기가 産育神 자격을 놓고 다투게 되었다.
5. 옥황상제가 꽃가꾸기 내기를 하여 이긴자가 삼승할망이 되라고 했다.
6. 명진국 따님아기가 이겨 삼승할망이 되고, 동해요왕따님아기는 구삼승이 되었다.
7. 그로부터 삼승할망은 환생꽃을 갖고 다니며, 인간을 잉태시키고 15세까지 키우게 되었다.

12) 김태근, 한국의 무속신화, 집문당, 1985, pp.103-105